

#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회보 2012년 여름 제127호



# 이화동창

2012년 여름 제127호



- |    |              |                                 |
|----|--------------|---------------------------------|
| 02 | 여름의 시        | 내 사랑아   신동준                     |
| 03 | 총동창회장 인사말    | 동창님들 덕분에 좋은 행사치를 수 있어 행복   조종남  |
| 04 | 동창의날 행사      | 19만 동창의 축제, 다양한 행사로 소중하고 뜻깊은 하루 |
| 09 | 2012 올해의 이화인 |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동창                   |
| 12 | 제1회 이화가족     |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
| 18 | 기획시리즈        | 노교수와 두려운 제자들 간호대                |
| 22 | 기획시리즈        | 김선주가 만난 이화 예술인-조각가 최은경          |
| 26 | 자랑스러운 이화동창   | 이정우 김은숙                         |
| 30 | 특별기고         | 국가브랜드에 기여할 다양한 이화브랜드   이배용      |
| 32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인도네시아   허용구 홍수정                 |
| 34 | 이화인의 나눔      | 2012 이화 명물장터 큰 바자회              |
| 36 | 이화문인 산문 릴레이  | 무명 순교자   이규희                    |
| 39 | 총동창회 소식      |                                 |
| 42 | 대학소식         |                                 |
| 45 | 과·학부 소식      |                                 |
| 51 | 국내·해외지회 소식   |                                 |
| 57 | 모교 소식        |                                 |
| 62 | 동창 소식        |                                 |
| 66 | 동창이 떠난 새책    |                                 |
| 64 | 사법시험 도전 수기   | 이화인들이여, 이제 합격만이 남아있습니다   안나현    |
| 73 | 축하합니다        | 제 19대 국회 등원을 축하합니다              |
| 77 | 동창회보 경연대회    |                                 |



## 편집위원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2012년 여름 제127호 비매품 | 발행 · 2012년 7월 10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mailto: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제간문예(02-3675-5633) | 디자인 · 박래우 편집공방 [www.raehoo.com](http://www.raehoo.com) 02-742-9991  
인쇄 · 신아인쇄  
© 2012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내 사랑아

신동춘 / 영문 53

초록이 겨운 내 사랑아

지금은 좀 쉬어 가잖구나

하얀 암사슴의 목덜미가 눈부신 한낮

지그시 눈 감고 깊은 숨 길게 들어 마시면서

고목의 모공이 뽑어내는 내음에 젓노라면

온 누리가 한 아름 안겨오지

나는 차라리 바다 속 심해어

아 이 한 아름의 열린 휴식 공간

녹색 우주가 봉괴한다는 소문이 새어들어도

소문 아닌 그 어떤 지급지중한 날벼락이라도

우리 사랑, 함께라면 한 뜻으로 받아넘기지

방문 열고, 마음 문 열고, 벽을 헐며

쉬는 듯, 가는 듯, 영겁을 바라보며

# 동창님들 덕분에 좋은 행사치를 수 있어 행복합니다

회장 조종남 | 의학 75

동창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동창님들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신록의 계절이 어느덧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작년부터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선배 동창회장님들의 공로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배우며, 때때로 그 분들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그 열정에 기슴 끊을 날도 있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좋아하는 운동연습을 줄이면서 동창회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였지만 동창님들을 섬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로 19만 명에 이르는 동창님들을 위해서, 또한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총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창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의 격려가 있었기에 지난 5월의 다양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참여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동창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창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부모님, 은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의 덕을 받았음을 늘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진 재능을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동창회는 그런 생각을 밑바탕으로 하여 동창들께서 동창회에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준비하였고 금년에는 특히 〈큰 바자회〉, 〈동창회보 경연대회〉, 〈합창제〉, 〈메시아 공연〉, 〈감사 찬양제〉 등을 열심히, 즐겁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동창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 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또한 5월 30일 동창의 날에 참석한 해외 동창들을 모시는 작은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따뜻하고 정감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바자회 수익금 일부를 '라이 따이안'을 돋는 '한 베재단'에 기증하였습니다. 11월에 열리게 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해 강유순 지회장님을 비롯하여 유럽에서도 지회를 연합하여 활동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쁨 충만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늦가을 아름다운 이화인의 밤에 많은 동창님들을 꼭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교 창립 126주년 기념 2012 동창의 날 행사

## 19만 동창의 큰 축제, 다양한 행사로 소중하고 뜻깊은 하루

모교 창립 126주년을 맞아 5월 31일(목) 오후 2시 모교 대강당에서 총동창회 주관으로 동창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해외와 국내지회, 각과 및 단과대학 등 약 2천 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이번 동창의 날은 <올해의 이화인 추대>, <회보 경연대회 시상>, <합창제> 등이 열려 즐겁고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었다.

김효신(의학 84) 총무 사회로 진행한 기념식에서 조종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이 자리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동창들을 섬기며 사랑과 화합, 열정의 동창회를 만들



조종남 총동창회장

고 특히 젊은 동창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나 많은 행사를 치르고 나니 감회가 깊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창들을 위한 봉사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모교 장명수 이사장, 김선옥 총장을 비롯하여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총동창회 윤순희, 김순영 고문, 최명숙, 주영희, 장의순 전 회장, 각 과 및 단과대학 회장. 국내외 지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이 날 행사를 축하하였고 참석 동창들 역시 오랜만에 찾은 모교의 아름다운 교정에서 추억을 나누며 즐거워했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1961년도 12월 졸업 동창(대표인사/법학과 김경희)과 졸업 30주년을 맞은 1982년도 졸업 동창(대표인사/교육학과 정대련)들도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전달받고 즐거워 했으며 모교 김선옥 총장은 동창들에게 모교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

로 이화를 세계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경옥(체육 80) 회우부장의 사회로 각 과에서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1982년 졸업 동창들의 입장과 인사, 임희영 동창의 부채춤 축하공연은 매년 열기를 더해 가는 학창제와 함께 이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또한 격년으로 시상하고 있는 동창회 보경연대회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금상은 의과대학, 은상 교육대학원, 동상 국제사무학과와 수학과, 장려상 법과대학, 약학대학, 남기주지회, 자카르타지회, 특별상에는 경영학과 동창회보가 수상하였다.

법과대학, 약학대학, 자연대학, 조형대학이 참가한 금년도 학창제는 채문경 음대학장을 위시하여 윤명자, 김동근 교수의 심사로 이화상에 자연대학, 사랑상에 약학대학, 믿음상에 법과대학, 소망상에 조형대학이 각각 수상하였다.

해마다 모교 창립일에 맞춰 개최하고 있는 ‘동창의 날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소중하고 뜻깊은 하루로 동창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동창 대표 김경희 동창과 총동창회장



장평수 이사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는 김순영 고문(왼쪽)

왼쪽사진부터 시계바늘 방향으로 총동창회장과 윤순희, 김순영 고문, 동창의 날행사를 축하하는 모교 윤후정 명예총장, 신인령 전총장, 장명수 이사장 등, 동창회보 경연대회 시상식, 이학인을 위한다과회에서 김선옥 총장(왼쪽)과 함께.





김숙자 보교 명예교수와 함께한 몸풀기

1. 이화상을 수상한 자연대학
2. 사랑상을 수상한 악학대학
3. 믿음상을 수상한 법과대학
4. 소망상을 수상한 조형대학
5. 체육대 댄스연구회의 특별공연
6. 특별출연 한음악대학 이음회



임희영 동창의  
축하공연





2012 읊해의 이화인

##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동창

과명 가나다순



간호  
박해숙



과교  
박종서



관현악  
장현악



경영  
한영신



교공  
김형미



교육  
이계영



기독  
유승희



도예  
서동주



독문  
강현옥



무용  
오승희



법학  
홍성년



보교  
김종민



불문  
어미화



사복  
박혜영



사회  
김선영



사학  
김시연



생미  
이혜경



서양  
차명임



섬예  
김운희



수교  
조은숙



식영  
한경주



심리  
한성엽



성악  
하인정



수학  
최영주



신방  
이경선



약학  
김영주



영교  
유지형



영문  
방혜성



외교  
전화순



유교  
현은자



의학  
임선영



장미  
정경선



정외  
노양희



제약  
양현우



조소  
안혜영



체육  
최정진



초교  
허미화



특교  
명경미



피아노  
윤혜원



한국음악  
서주미



화학  
성은경

제1회 이화가족

#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총동창회가 1년 중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5월에 개최한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이화동창 가족들에게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아내의 모교를 방문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만든 뜻 깊고도 귀중한 행사였다.  
5월 12일(토) 10시 부모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대강당 앞에 모인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미술용품과 정성어린 점심을 한아름  
받아들고 이화 캠퍼스곳곳에서 아름다운 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분주하였다.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220여 명의 참가 어린이와  
400여 명의 이화 가족들이 함께 하여 수상자들에게 박수와 축하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조종남 총동창회장과 임원들이 자녀 양육으로 동창회 참여가 저조한  
젊은 동창들을 위해 모교 방문을 겸해 마련한  
첫 번째 행사로 어린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느끼고 격려하는 것과 더불어  
이화 가족들이 하나됨을 느끼는 소통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심사위원장 심사평

## 동심의 세계에 감명, 앞으로 더욱 큰 기대

박혜성 | 장미 78, 이대조형대 겸임교수, 한국색채학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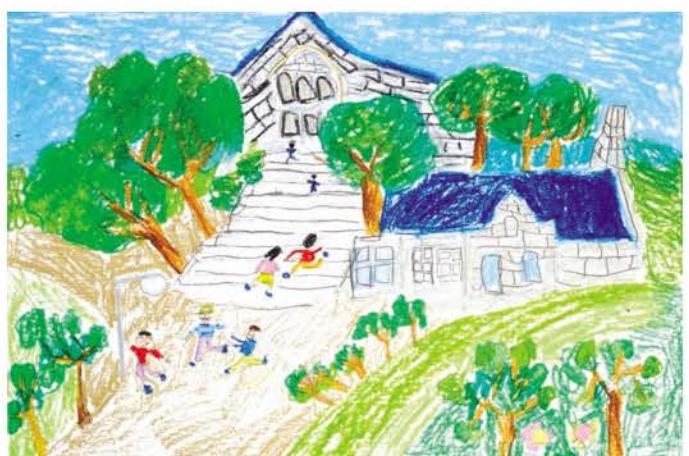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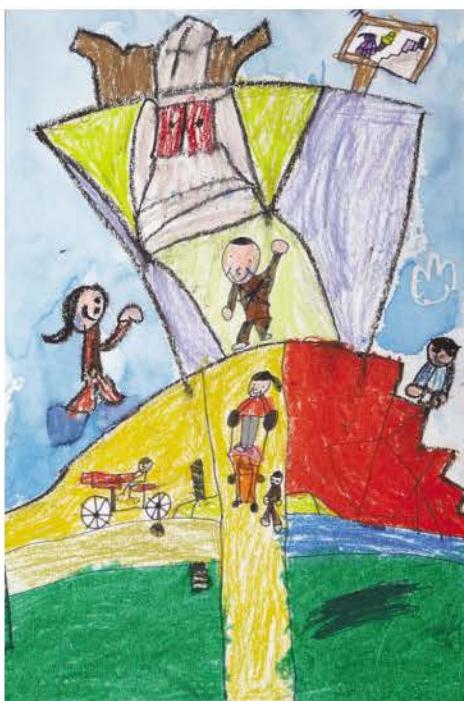


모교가 창립된 5월에 제1회 이화가족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동창회에서 주관한 이번 어린이그림그리기 행사는 젊은 동창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하는 동 청회가 되기 위해, 또한 동창의 자녀들에게도 엄마의 학교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자랑스런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여 미래 이화인의 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그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시하고 싶은 의지도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날 곳곳에 흩어져 그림 그리는 어린이, 뛰어다니며 즐거워 하는 어린이,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창들, 오순도순 점심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모교 교정을 그린 어린이들의 꾸밈없는 그림을 보면서 동심에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에너지가 가득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많은 좋은 그림 중에 상을 주는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심사위원들이 정한 기준에 준해 결정했습니다. 아주 잘 그린 그림, 마무리가 완벽한 그림, 미술학원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형식화된 그림, 엄마가 아주 열심히 그려준 그림보다는 다소 부족하고 마무리를 끝까지 못해도 어린이의 순수함이 묻어나거나 창의적인 시각, 표현의 자유, 개성 있는 색을 사용한 그림에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은 그림 중에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도 있었지만 어린이의 그림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그림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유아부 어린이는 천진난만한 즐거운이 담아 있거나 색의 선택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초등부는 전체적인 구도, 조화로운 색상, 이미지 전달이 잘된 그림을 선정하였습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아짧은 심사 시간으로 수상작 선정이 힘들기는 하였으나 다음 대회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큰상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다음 번을 기대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무궁무진한 재능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와 동창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등부 총동창회장상 수상작 박현서

유치부 총동창회장상 수상작 서정의

## 즐거운 가족 축제 같았던 하루

이 현정 / 전봉란(간호 75) 동창자녀



전봉란동창과 부군, 사위와 딸, 수상자인 서정의군과 동생 준희양

저희 아이들, 7살 정의이와 5살 준희는 외할머니(전봉란 75)가 다니셨던 학교에서 소풍 온 듯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뼈이나 새롭고,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정의이는 제법 진지하게 대강당 계단 아래 자리를 잡았고, 주변을 관찰하더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그림그리기를 즐겨하는 아이지만 이날따라 크레파스에 날개를 단 듯 거침없이 그리더군요. 검은색 크레파스로 스케치를 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내내 얼마나 참견을 하고 싶던지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도화지는 한 장 뿐인데 틀릴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달랐나 봅니다. 긴장한 엄마와는 달리 정의이에게는 대회이기 보다는 그저 재밌는 이벤트

였고, 자기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재밌어하며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는 아이를 방해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캠퍼스의 활기찬 분위기,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어울린다는 즐거움, 그럼 그리기에 특별함이 더해져서인지 정의이의 그림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정의이도 뿌듯해 했지만, 저희 가족 모두 이미 정의이가 그런 그림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사실 정의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긴 했지만 미술학원에 보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림 한장을 제대로 완성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니까 매일 그림을 그리고 노는 것이 다였는데 잠재력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발휘되었나 봅니다. 정의이의 그림에서 마음까지 봄주신 심사위원님들 덕분에 뜻밖의 좋은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라상을 받 아보는 경험도 하게 되었고요.

외할머니가 다니시던 학교에서 함께 그림을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추억이 되었을 텐데 저희 가족에게는 기쁨을 정의이에게는 자신감을 넘으로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회가 꾸준히 이어져서 많은 가족들이 할머니와 엄마의 추억을 공유 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동창회장상 수상 초등부 박현서 어린이 가족 수상 소감

##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는 감동

홍진표 / 디자인대학원(04)



홍진표 동창과 부군, 수상자인 박현서 군, 동생 자훈군과 세연 양.

어느새 40대에 들어선 지금, 세 아이를 키우며 대학에 강의를 하는 바쁜 일상 속에 동창회 메일을 한통 받았다.

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별망설임 없이 대회신청을 해두고는 5월 12일의 날씨가 좋기를 바랐다.

공직생활을 하는 남편은 지난 3년을 전북 정읍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이들은 2년여를 아빠와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고 주말에도 일이 바쁠 때는 못 오는 때가 많아서 그 빈자리가 작지 않게 느껴졌었다. 올해 2월 남편이 수원으로 발령받아 다섯 식구가 모여서 살게 되어 집안은 늘 북적북적, 휴일이면 어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면 세 아이 중 큰 아이만 터울이 크게 지다보니 큰 아들 현서에겐 조

금은 시시했을 나들이도 꽤 있었으리라.

드디어 5월 12일, 오랜만에 학교에 도착하여 교정에 들어서니 학교는 너무 아름답고 활기차 보였다. 내가 박사과정을 마치던 2007년엔 학교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었는데 현재의 모습을 보니 그 시절이 아련한 추억으로 느껴졌다.

큰아이 현서는 풍경화를 그리려니 처음엔 “이렇게 뭐가 많은데 어떻게 다 그리지?” 고민하다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려야겠다고 했다.

동생들은 잔디에서 비눗방울을 불며 뛰어 노는 데 둑자리를 깔고 혼자 엎드려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품이 귀엽기도 하고 약간 의외였다. 아이들과 함께 동창회에서 제공한 도시락과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거기다가 현서 그림이 꽤 잘 그려진 것 같아 내심 수상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시상식에서 마지막 대상인 동창회장상 호명 직전까지 현서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아 적잖이 실망감이 들었는데 그 순간 “동창회장상 박현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날은 우리 가족에게 아직까지도 감동이 가시지 않은 기념일이 되었다.

평소에 동창회에서 친절히 이메일 등으로 각종 행사 안내를 해주셔도 무심히 보고 지나쳤었는데 나름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다. 우리 가족에게 기념일을 선물해주신 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백의 천사 탄생의 주역, 이광옥 교수와 그 제자들



윗줄 왼쪽부터 안지숙, 양순옥, 김명희 동창, 이광옥 교수, 김진향, 양숙자, 최혜영 동창  
아랫줄 왼쪽부터 최애숙, 김성남, 박민희, 임미림 동창

## 노교수의 회상

###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행복한 사제기간

이 광 옥 전 간호과학대학 교수(간호과학과 3회, 1961년 졸업)

1969년 3월 1일부로 간호대학의 실습지도원, 연 구원으로 시작하여 교수로서 2004년 8월 은퇴하기까지 34년 6개월 동안 지역사회 간호학이란 과 목을 담당하였다. 과목의 특수성으로 인해 병원 이 외의 장소에 있는 개인, 가족, 집단(학교, 산업장),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에 초점을 둔 실 습지도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이론시간 보다 실습시간을 통해 서로 상대방을 더욱 이해하고, 신뢰하며, 사 랑과 보살핌의 마음이 형성됨은 물론 불평과 불만 에 쌓여있던 학생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 할 때 느꼈던 뿌듯한 마음은 지금도 내 입가에 미소 를 짓게 한다.

또한 간호학의 다양한 이론과 실습으로 인해 학 창시절부터 반사회인의 경험을 토대로 졸업 후 어

느 직장에서나 훌륭하게 제 뜻을 감당해 내는 졸업생들을 볼 때 그 기쁜 마음을 어찌 이 좁은 지면에 담을 수 있겠는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는 결혼으로 인해 학교를 포기했던 57학번 내 친구 박영이 2003년 5월 이화여대가 금혼 학칙을 폐지한 직후 인 그 해 9월 재입학하여 2004년 1학기 내 마지막 강의를 들은 학생으로 상봉한 일이다. 이 또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매년 4~5회 정도 이름 있는 날 반가운 친구이자 동료인 제자들과의 만남은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유머를 통해 웃음을 선사하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베풀고, 받아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갖도록 노력하는 나에게 큰 힘이 됨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랑과 신뢰로 맷어진 행복한 사제지간으로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 제자들 이야기

## 윗트와 유머가 넘치는 교수님

김진향 /73. 안산대 교수

언제나 아름답게 다듬은 단정한 모습으로 간결하며 명쾌하게 윗트와 유머가 넘치는 교수님으로 원칙적인 지역사회간호학을 너무나 쉽게 강의하면서 그 시간은 언제나 빨리 지나갔고 늘 아쉬웠다.

선생님의 끝없이 샘솟는 에너지와 긍정적인 무한한 잠재력은 항상 우리에게 많은 자극이 되었으며 좋은 간호사의 민첩함과 생활의 지혜를 지닌 분

이다. 내게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신 분으로 50이 넘은 나이에 박사과정을 하도록 이끌어주신지도 교수시기도 하다.

항상 자상하고 온화하게 대해주신 교수님의 배려 덕분으로 어려움 없이 졸업 할 수 있었고 논문의 방향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근시예측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제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다. 좋은 스승을 만나 인생의 큰 배움을 얻었고 그 시간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유익하였다

이제 나 역시 교수님과 같이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숙하고 밝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며 내일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다짐한다.

## 참 멋지고, 사랑 많으신, 좋으신 선생님

김명희 /74. 서울여자간호대 교수

간호학 공부에 자기지향성을 갖게 해주신 선생님! 제자들에게로 향한 크고 많은 사랑 주시기는 내게 사랑 나눔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셨으며 늘, 멋진 모습 자기 관리의 필요함을 알게 하셨다.

그 옛날 35년 전 선생님께서 내게 마련해 주신 일터에서 간호학문의 날개 짓을 펼칠 수 있었으며, 오늘까지, 나의 소중한 삶과 학문의 현장이 되었다.

때때로, 때때로 격려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가르침은 닮고 싶은 스승의 모델이 되어주셨다. 선생님과 함께한 40여 년 세월은 이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었다. 그 때 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으신 나의 좋으신 선생님!



이광옥 선생님

## 축복의 통로, Happy Virus 교수님

양순옥 /75. 한림대 교수

청년기 시절에 제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가 이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알게 됨이며, 그 다음은 이 교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하고 싶다. 교수님은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늘 격려를 해주셨다. 학생들, 동료 교수님 등 어느 누구에 대한 말씀 속에도 부정적인 말씀을 거의 들은 적이 없기에 참으로 놀랐던 기억들이 많다. 늘 밝고 멋진 모습 속에서, Happy Virus를 감염시키며 어둠을 밝은 빛으로 만드시는 축복의 통로이시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날 교수님의 멋진 선물은 지금도 삶의 귀감으로 삼고 있다. 환한 미소로 축하와 함께 값진 등받이 쇼울을 주시면서 “당신을 위해 늘 새벽재단을 쌓는 시어머님께 갖다드리라”는 말씀에 제자의 사랑은 물론 제자 가족까지 배려하시는 교수님의 크신 사랑에 몸 둘 곳을 찾지 못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교수님은 저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산 모델입니다. 늘 저희 곁에서 축복의 통로로, Happy Virus로 동행해주시는 교수님, 사랑합니다.

## 항상 제자들이 찾아뵙고 싶은 선생님

양숙자 /81. 이대 간호과학과 교수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재직할 때 10년 만에 주워진 연구관 승진시험 기회가 왔어요. 합격률이 20%라서 합격을 위해서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전념하여야 하는데 박사학위 논문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제게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를 꽉꽉 살려주시어 결국 집토끼와 들토끼 모두 잡는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보람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어요.

항상 환하고 꾸밈없는 밝은 미소로 사랑을 전하시는 선생님, 우리보다 젊어 보이시는 멋진 선생님, 항상 제자들의 단점 보다는 장점을 더 크게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 행복하고 항상 찾아뵙고 싶은 선생님이시랍니다.

## 담요같이 따뜻하고 제자의 인생까지 배려

윤희상 /84. 서울여자간호대 교수

따뜻함이 묻어나는 이광옥 교수님은 늦게 공부

를 시작한 저에게 담요 같은 분이셨습니다. 학교에 오랜만에 돌아와 서먹서먹 했을 때 이름을 부르고 먼저 인사를 해 주시는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늦은 공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공부와 인생을 세심하게 배려해주셔서 저는 당당히 학위를 마칠 수 있었으며 늙은 학생에게 장학금까지 주셔서 경제적인 벼름목도 되어 주셨습니다. 학위는 임산부와 같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야 나온다는 말씀으로 조급함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 샬롬이 강물처럼 흐르는 지역사회 간호학교실

임 미림 /90 백석대 간호학과 교수

1986년 선생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은 데모와 구호소리로 늘 학교는 전쟁터였다. 시험을 거부하며 선생님 수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우겼대는 우리들을 연구실로 조용히 부르셨을 때는 아마도 불호령에 눈물 쑥 빠지게 야단맞겠지, 라는 우려를 갖고 선생님 방을 찾았을 터였다. 예상은 빗나갔다. 선생님은 우리를 푸신한 소파에 주저앉히시고

예의 그 신선하고 경쾌하신 목소리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 다 들으시고는 “너희들의 말도 옳다” 시며 등을 두드려주시고 한편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하셨던 것 같다.

옳은 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말씀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 그 평범한 사실을 그날 처음 깨닫게 해주셨던 것도 같다. 선생님을 최근거리에서 뵙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일하던 병원에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사건을 겪으면서 당시 학장으로 계시던 선생님은 병실에서 사건에 휘말려 엉엉 울고 있는 나를 직접 데리러 오셨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건이 더 커지려고 하는 찰나에 백마 탄 기사처럼 나를 구하러 와주셨던 것이다.

선생님은 언제나 내게 있어 해결사이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지역사회 간호학교실의 믿음의 어머니, 이광옥 선생님! 오랫동안 내게 선생님은 샬롬의 의미를 가르쳐주시고 샬롬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



# 개성있고, 자유롭고, 뜨거운 예술혼 조각가 최은경 (조소과 79)



현재 이대 조형예술대학 조소과 교수

79 이대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88 이대 조소과 대학원 졸업

97 Parsons School of Design, Ceramics, New York 졸업

1997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U.S.A.

도예과 초대작가를 시작으로 해마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등에서 작가와 교수로 초빙받았다.

· 개인전 27회

· 단체전 2000년~2011년까지 해마다 7~8 차례

2012 Mind Cure Mind Cure 전, 화봉갤러리, SAFA conversation

멘토와 멘티전, 메리어트 호텔 / 중국 청도 출판 예술원 초청 월드아트페

스타 우수작가 초대전, 청도 출판 예술원 /

서울미협전, 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

뉴욕 KOREA ART FESTIVAL 전, Hutchins Gallery, New York

· 작품 소장 제주 조각공원, 서울의 숲, 서울, 광주 서재필 박사 조각

공원, The Shigaraki Ceramic Cultural Park, Japan, Shilds 도서관,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 Israel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U.S.A. WISONMUSEUM, Shanghai, China 등 다수

## \* 미술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본격적인 그림 공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였어요. 법조인 아버지와 영문학자이며 의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저의 직업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를 법대에 보내려 했지요. 그런데 그 해 입시 문제로 논문이 나와서 떨어졌어요. 그것이 저의 행운이었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재수하면서 처음으로 미술학원을 갔어요. 찰흙이 놓여 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너무 좋아

서 바로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조각에 미친 듯이 몰두했고, 조소과를 택하여 1등으로 입학했어요. 그동안 저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후회 없이 조각 속에 파묻혀 살아왔어요.

## \* 예술적인 끼는 천부적으로 타고 난다더군요

대학 졸업 후 조각 공부는 어디서 하셨나요?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의 풍토는 무엇보다도 결혼이 우선이었고, 부모님들의 당연한 소망이었으니까요. 의사인 남자

와 결혼을 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 저의 미술에 대한 열망은 그것으로 잠재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 몰래 이대 대학원을 등록하고 졸업을 했어요. 하지만 오로지 조각에 몰두하면서 인간적인 삶을 깊이 고뇌하며 자유롭게 창작적인 삶을 꿈꾸던 저에게 여성의 학생을 강요하는 결혼 생활은 도저히 맞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절망 속에서 결국 택한 것이 결혼생활을 접고 삶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죽음 저 편에서 다시 살아났고, 저는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무작정 미국 뉴욕으로 갔지요. 누구의 도움도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나만의 생활을 스스로 개척하리라 결심하고요. 처음에 세탁소에 취직했는데 일이 익숙해지자 서서히 자아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엇인가?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견디며 단순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방학이면 빈 학교에서 의사나 변호사들이 봉사로 가르치는 곳에 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미술쪽의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업적인 아트 딜러들의 태도에 실망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지요. 나를 도와 주려는 변호사에게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소개해준 사람이 Parsons school의 80여세 늙은 교수 미술평론가였어요. 그에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갔더니, 한동안 들여다보면서 ‘한국에서라면 참 말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날 왜 찾아왔느냐?’ 하는 물음에 ‘예술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지요. ‘예술을 어떻게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느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감동했어요. 누구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는 말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업을 듣겠다고 했어요. ‘너는 이제 더 배울 것이 없다. 너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한다. 네가 좋은 작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네 스스로 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하면서 가르칠 것이 없으니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그를 찾아갔지요. 그림을 그려 올테니 봐달라고 떼를 써서 겨우 수업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려 가도 안 쳐다봐요. ‘이건 그림이 아니다. 이건 너의 것이 아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너는 앵무새처럼 내 소리만 듣고 입만 쳐다보고 따라하려고만 한다. 너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하며 계속 고개를 젓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어느 눈이 펄펄 내리는 추운 새벽에 저는 박물관으로 가서 막막한 마음으로 앉아있다가 ‘나는 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며 백지 위에 커다란 돌 하나를 그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갔더니 그가 한동안 보고 나서 ‘더 이상 질문의 여지가 없다. 너는 이제 진정한 예술가다.’ 하면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내 심장과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구나. 그래야 비로소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곧 참 교육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도 방학 때마다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 작가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옵니다. 학생들에게는 기교를 가르치는 것보다 ‘네가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길, 그것이 곧 예술가의 길이다’라고 가르치지요.

\* [이대 교수로 오게 된 사연이 있습니까?](#)

제가 받은 교육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49세의

늦은나이에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 채용 때, 신인령 총장님의 질문이 기억나요. ‘작가로서의 한국에서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셨을 때, ‘그건 세상의 몫입니다. 작가는 일단 작품을 성실히 작업해서 세상에 내놓으면 그냥 뒤 돌아서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력이 많지 않으십니까?’ ‘한국은 학력, 인맥이 너무나 좌우하고 조직 안에서 사업처럼 해야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작품으로만 말하지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총장님이 계신 이대의 분위기가 좋아서 이곳으로 왔어요.

#### \* 학창시절의 친구나 스승님이 있다면?

저는 언제나 혼자 내 세계를 추구하며 방황했고, 책과 삶에서 진수를 찾느라고 별로 친구와 어울려 다니지 못했어요. 지금도 어떤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고, 학교에 있다가 작업실로 직행해서 오직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스승님이라면 저에게는 아버지 같으신 김봉구 지도교수님이 계세요. 결혼하고 남편이 군의관으로 지방에 가 있을 때에 어쩌다 선생님을 찾아오면 ‘너 친정에 왔구나’하면서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서울에 왔을 때, ‘너 많이 놀았지?’ 하면서 옆방을 치우고 작업을 하라고 하시고 국전에 내보내시고 1학년 구상을 가르치라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시댁 몰래라도 대학원에 가야 한다면서 격려를 해주시고 조교까지 시키면서 길을 인도해주셨어요. 지금은 명예교수님이시죠. 스승의 날이면 저의 지도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선생님께 큰절을 올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지요. 저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자

식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 제자들을 기르면서 힘들거나 기쁜 일은?

재능있는 학생들을 애써서 키웠는데 결혼으로 멀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것 같아요.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뿌듯해서 이제 뭘 하겠지 하고 기대를 하면 시집가고 (물론 결혼도 해야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기업체 디자인실에 취직을 하니 순수 미술이 되지 않아 안타깝지요. 좋은 작품 창작할 때, 제자들이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을 때면 제가 더 행복해요.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세상을 좀 더 넓게 깊이 보고 느꼈으면 해요. 죽을 각오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안목을 넓히고, 눈물도 흘리고, 삶의 진한 의미를 깨닫고 오라고 외국 유학을 권하지요. 절대로 중도에 그만두지 말라구요. 졸업전에 작업을 함께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어울릴 때면 행복합니다.

#### \* 저는 피카소, 뭉크, 모네, 고흐, 세잔느 같은 화가들은 잘 알겠는데, 조각가라면 좀 생소해요. 유명한 조각가가 있다면?

좋은 조각가가 많지만 영국의 조각가 데미안 헐스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세상의 냉혹한 이치를 뜻하는 그 작가의 조각품을 처음 보았을 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새로운 기법에 놀라웠지요.

#### \* 교수님의 작품은 깊이 있는 철학과 지혜와 진솔함이 느껴져서 문외한인 저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작품에서 주로 지향하는 바는?

요즘에 저는 책-앎(知)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책을 통한 지식의 오만을 비판하는 작품을 추구해왔어요. 뉴욕의 현대 미술관에



최은경 교수  
작품

서 영국작가가 성모마리아 밑에 코끼리 똥을 싸놓은 것을 전시했어요. 그런데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성스러운 것과 가장 불경스러운 것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대중의 극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가 성스러운 동물이거든요. 순수예술이 상업적인 것에 어디까지 휘둘려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식에 의해서 더욱 교묘하게 위장되고 호도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요. 지식이라는 것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요. 저는 현대문명에서 오만한 지성을 경계하며 순수한 본성을 회복하면서 삶을 자연자체의 흐름에 맡기고 싶어요. 생의 광활함과 존재의 기난함을 작품으로 다루려고 하지요.

\* 이대 동창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저는 단지 동창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미술관이 하나 있었으면 해요.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요. 그리고 동창회에서 동창을 위한 사생대회를 개최한 것이 정말 좋았어요. 이대 동창이라면 이 아름다운 교정에서 후손들과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보람이 있었고,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한 총동창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진정한 예술가를 만나게 되어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김선주/불문65 한국소설분과 회장, 이화동창 편집위원

## 엄마의 꿈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는 딸의 열정

(주)메종드이영희 전무이사

이정우



이태 약대졸업(79년)

경희대학교 예술 디자인 학부 겸임교수(2001.9~)

ESMOOD Paris 연수

월간 조선에 의해 2001년 한국인의 초상 59인에 선정

국내 최초의 디자이너 향수 'sa fille by Jeong Woo Lee' 런칭

유니버설 창작 발레단 '발레춘향' 의상 전막 디자인

F/W World Boutique Hong Kong 참가

Musical 'Peppermint' 의상 디자인 등

요즘 이정우 동창은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의 딸 보다 전지현의 시어머니로 더 유명하다. 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둘째아들 최준혁씨가 동갑내기 톱스타 전지현씨와 지난 4월 결혼에 골인했기 때문이다. “참 착하고 좋은 애예요. 일찍 데뷔해서 꽃다운 20대를 연애도 못 해보고 놀지도 못하고, 취미가 오로지 집에서 음악 들으며 책보기라니 너무 안쓰러울 정도지요.

국내 디자이너로는 처음으로 “사피(sa filles)”라는 이름으로 향수를 개발해 세상에 내 놓았던 뛰어난 디자이너 이정우가 이화여대 동창이라면 모두들 미대나 의류학과를 졸업한 걸로 생각한다. 그러나 약대를 졸업한 약사로 패션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오로지 ‘엄마 이영희의 착한 딸’이었기 때문이다.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 얻은 첫딸 정우를 잘 키우기 위해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임지를 따르지 않고 서울로 올라온 이영희씨는 처음에 명주솜 장사를 시작했다. 아이들과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외할머니의 눈썰미와 바느질 솜씨를 그대로 이어 받은 데다가 사업수완까지 겸비했던 이영희씨는 솜으로 시작해서, 이불, 한복, 혼수로 사업을 확장 시켜 70년대 최고의 혼수업체이던 윤씨농방의 서교동 레이디스타운에 입점해 명성을 떨치게 된다. 83년에 해외에서 첫 패션쇼를 열며 승승장구하던 이씨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87년, 직원들이 디자인을 빼돌려 짹퉁 이영희 옷이 사중에 나돌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엄마가 한 달만 가게에 나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때 저는 약대를 졸업

하던 해 결혼해서 일곱 살 여섯 살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였거든요. 사실 저도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예술은 취미로 하고 어떻게 든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고 하도 우기는 바람에 약 대로 간 거예요. 그래도 마련이 남아 늘 인문학과 예술 강좌를 기웃거리곤 해서 어느 날 제가 실험하러 가야한다고 했더니 약대 다니냐고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결혼 후 하도 미술 공부가 하고 싶어서 이대 산업미술대학원에 등록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낳게 되니 그마저도 포기한 상태였죠.” 그 한 달이 갓 서른된 이 동창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후 이동창은 본격적으로 패션을 공부하는 한편, 엄마 회사의 디자인실장을 맡아 10여 년간 일하며 엄마의 꿈인 파리 컬렉션의 성공적인 진출과 부티샵 오픈에 결정적인 역할을하게 된다. 이영희 씨는 1993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에 한국디자이너 최초로 참가했고, 94년 역시 한국 최초로 파리에 부티크를 열어 ‘파리에서 가장 예쁜 가게’에 여러 차례 뽑혔다.

“엄마와 함께 일하던 처음 5년 동안은 이 일을 내 평생의 직업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많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엔 내 이름을 걸고 할 것인가에 대해 5년 이상 고민하다가, 제 브랜드를 만들고 독립했죠. 저는 후계자를 키우는 것도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세계 최초로 민속의상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전통의 고귀한 가치를 널리 알리며 공감을 얻은 혁신적인 분으로 너무나 존경해요.”

이영희씨는 파리에 이어 뉴욕으로 진출해, 2000년 6월 카네기홀에서 패션공연 “Wind of History”

가진데 이어, 2004년 9월 맨해튼에 “Lee Young Hee Korea Museum”을 오픈했다. 2005년에는 지금도 우리 눈에 선한, 부산 APEC정상회의 때 제작한 두루마기로 21개국 정상의 찬사를 들었고,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12벌의 옷이 영구 소장되었으며, 2008년, 구글 아티스트 캠페인에 ‘세계 60인 아티스트’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얼마 전 펴낸 책, ‘파리로 간 한복쟁이’에서 이영희씨는 뉴욕박물관과 부티크를 이어나가는 일을 딸에게 믿고 맡긴다며, 한복의 아름다움에 미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엄마를 잘못 만나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신세가 된 딸에게 “정우야!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스무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엄마와 딸은 모녀 지간이라기보다 자매 같은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동창에게는 엄마이자 상관이며 보호해야 할 탁월한 예술가로 다가온다. “엄마가 질러놓으면 그 뒷 수습은 다 제가 하게 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전정신이 오히려 더 불붙는 거 같아 어떤 때는 그 무모함에 기가 질릴 정도지요. 진짜 지겹고도 놀라운 엄마예요!” 90년대 처음 파리에 갔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넘을 수 없는 벽을 실감했던 이동창은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엄마의 꿈과 철학이 담긴 ‘이영희’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인삼각으로 함께 달리는 이영희, 이정우 모녀의 열정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우뚝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

글 백수경 | 신방79, 이화동창연집위원

## 3대에 걸친 가업 반듯하게 키우는 불문학 박사

(주)한일관 대표

김 은 숙



이태 불어불문학과 졸업(84년)

Université Paris IV (Sorbonne) 대학원

Malrise ès lettres 졸업(85년)

Université Paris III (Sorbonne Nouvelle) 대학원

Doctorat ès lettres 졸업(91년)

이화여자대학교/홍익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시간강사(91년~95년)

기호학연구소 연구원(94년~95년)

격조 있게 상견례를 가질 수 있는 한정식  
코스요리로부터 가족 외식의 최고메뉴인  
불고기와 갈비, 그리고 맛깔스런 일품요리  
인 냉면, 만둣국, 비빔밥에 이르기까지 역  
대 대통령들의 단골집이며, 대한민국의 으  
뜸가는 식당, 한일관(韓一館) 대표 김은숙  
동창의 3대에 걸친 가업을 이어가게 된 특  
별한 사연을 소개한다. 1대 창업주인 신우  
경 할머니는 1939년 종로3가에서 허름한  
한옥을 개조한 화산옥을 창업했는데, 주메  
뉴는 당시 인기 있는 대중식사였던 장국밥  
과 너비아니였다. 45년 해방 후 우리나라  
최고의 식당이 되라고 한일관으로 옥호를  
바꾸어, 결혼식 피로연과 회갑잔치의 명소  
로 꼽히며, 67년에는 명동에 분점을 낼 정  
도로 번성기를 누렸다. 78년 딸만 둘을 두  
었던 신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장녀인 김동  
창의 어머니 길순정 여사가 사업을 이어받  
게 되었다.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여자  
의과대학을 다니다 결혼한 길여사는 전문  
인력을 써서 한일관을 이어갔으나, 70년대  
후반부터 갈비를 주로 파는 가든이나 대형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  
을 겪게 된다.

97년 어머니처럼 딸만 둘을 두었던 길여  
사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은숙, 이숙 자매는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온 한일관을 계속해  
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재무부와 국세청에 근무하셨던 보수적  
인 아버지께서 적극 권하셔서 이대 불문과

에 진학하게 되었고, 프랑스에 유학해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사실 제 적성에 맞는 분야는 아니었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89년 12월, 스물아홉이었던 저는 결혼해야 한다는 엄명에 잠시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기막힌 아버지 빈소에서 남편 서정국교수(인제대서울백병원 정형외과)를 처음 만나게 된다. 서른네살이 되기까지 수없이 선을 봐왔던 노총각 의사는 동향의 선후배였던 아버지끼리 정해 놓은 신부감의 꾸미지 않은 순수함이 마음에 들었다.

“아버지 백일 탈상 후 서둘러 결혼하고 2주만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논문을 완성하고 왔어요. 그 때부터 우린 연애를 처음 시작한 거 같아요.” 흥의대, 서강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하며 교수직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95년에는 모교 교수공채에 응시하여 당시 윤후정 총장님 면접까지 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때 교수가 되었더라면 아마 한일관은 문 닫았겠죠.”

망설이는 언니에게 할머니와 엄마가 하던 건데 둘이 힘을 합쳐 한번 해보자고 불문과 3년 후배인 동생 이숙씨가 권유했다. 동생은 병약했던 어머니를 도와 이미 몇 년째 한일관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명동한일관은 엄청난 상속세를 정리하면서 임대를 주었다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반년 동안 휴업한 뒤, 97년 12월 종로본점은 두 자매의 힘으로 다시 개업하게 된다. 70년 동안 종로 피맛골을 지켜온 본점은 2008년 재개발로 문을 닫았지만,

2009년 압구정점을 시작으로,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영등포점과 2010년에는 을지로점을 잇달아 오픈해, 한식패밀리레스토랑으로 사랑을 받게 된다. 김동창은 주저 없이 ‘착한 직원들’을 비결로 꼽는다. 지금도 한일관에는 할머니 대부터 몇십년씩 근무한 직원들이 수두룩하고, 대를 이어 일하는 직원들도 많다.

김동창이 대범한 성격인 반면 동생은 미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세심하다는 것도 두 자매가 서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담당해 가업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 되었다. “한일관이 온몸이라면 저와 동생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하는 신체의 부위라 생각해요. 우리 몸에서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너무 불편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고 고맙지요. 직원들이 보람 있게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동창은 종로본점 자리에 새 건물이 완공되면, 종로점은 반가운 만남을 위한 아늑한 방들로 꾸미고, 을지로점은 직장인들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부담 없는 공간으로 차별화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자와 노자의 말씀인 〈君子不器군자는 그릇이 되지 말라.〉와 〈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를 스스로에게 바라는 가치로 삼으며, 어디서든지 그릇이 아니라 담기는 물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은숙 이숙 자매동창은 3대 70여년을 이어 온 한일관을 오늘도 정성껏 섬기며 키워나가고 있다.

글 백수경 | 신방 7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이화’ 126년은 세계인 감동시킬 귀중하고 다양한 브랜드 가치

이 배용 /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 13대 총장



요즈음 브랜드의 시대라고 한다. 브랜드라고 하면 보통은 상품의 브랜드를 생각하지만 국가의 브랜드라고 할 때에는 상품 브랜드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품격을 말한다. 2009년 1월에 설치된 국가브랜드 위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품격이 있을 때 세계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라는 경제적 성장만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반듯한 나라로서의 위상을 세울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와 호감을 높이는 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화에서 126년을 닦아온 이화브랜드다. 바로 이화브랜드라고 하면 이화가 세계인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품격인데, 이화에는 특별히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중한 브랜드 가치가 새겨져 있다.

이화브랜드라 하면, 첫 번째, 도전과 창조의 정신이다. 양성평등, 나아가서는 인류평화의 꿈을 갖고 열정을 모아서, 그러면 앞을 내다보는 도전 속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이화정신의 브랜드가 있다. 스크랜튼 선생님이 세계를 품고 미래를 품고 사랑을 품고 이역만리 낯선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학생으로 시작한 꿈이 원대하게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이화가 있다. 릴레이주자처럼 아펜젤러 선생님은 신촌캠퍼스의 꿈을 가지고 오늘날에 세계화, 또 전문인의 영역을 넓히셨다. 김활란 선생님께서도 종합대학을 설치하시면서 많은 이화인들의 꿈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수를 놓아 지금 세계 최대 여자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셨다. 이외도 수많은 이화인들이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만들면서 한국 근대화와 세계화의 길에 앞장서왔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나눔의 봉사정신이다. 이화인들의 가슴에는 따뜻함이 있다. 총명한 지혜도 있지만 항상 어려운 이웃에게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온정의 가슴이 있다. 선교사 선생님들이 심어준 사랑과 헌신 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터 선생은 미국 유학 후 귀국해서 1900년부터 교통의 오지도 마다 않고 산간 곳곳까지 찾아가 병들어 신음하는 여성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술에 힘을 바치다 순직한 분이다. 그분의 아름다운 봉사정신이 이화인 봉사의 DNA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화의 선교사들이 아픈 영혼을 위로하고 희망을 나눠주고 있다. 바로 이화의 이러한 봉사정신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는 특별한 브랜드라 생각한다.

세 번째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사랑하는 애국심이다. 스크랜튼 선생님은 이화를 세우면서 “나는 서양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궁지를 가지고 보다 나은 한국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해서 완전무결한 한국인을 만들고자 희망하는 바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초의 교사도 한옥으로 지으셨다. 유관순 열사의 애국 독립정신은 너무나 잘 아는 바이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수많은 이화인들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숭고한 민족의 자존심, 불굴의 독립정신이 있었기에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면 항상 이화가 함께 있었다.

네 번째는 약속에 대한 책임과 신뢰다. 126년 이화의 역사는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다. 이화는 이화만의 학교가 아니다. 사회가 지지하고 믿고 밀어주기 때문에 오늘의 이화로 굳게 성장하게 된 것이다. 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화를 믿고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이화가 세상에 많은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가는 양성평등의 길,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화의 오늘이 이루어진 데는 지도자, 스승, 우리들의 선배님들의 열정적인 사명과 책임의 신뢰가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좁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화의 희망의 힘. 오늘이 충실하고, 내일을 책임 있게 열어가는 그러한 이화의 열정과 사명이 이화가 세계에 존재하는 이유라

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화의 브랜드에는 가슴에 새겨진 기도와 감사의 기본 정신이 있다. 이화는 1883년 볼드윈 여사의 기도로 시작된 학교다. 볼드윈 여사는 한국의 여성들이 좀 더 교육받고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현금을 하고 기도를 제안했으며 그러한 기도 덕분에 스크랜튼 선생님이 54세라는 고령으로 이역만리를 건너와 이화를 설립하는 굳건한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아펜젤러 선생님도 신촌캠퍼스를 지으시면서 “우리 이화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전 세계의 사랑이 이루어놓은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참으로 기도와 사랑과 감사의 놀라운 힘을 우리가 이화의 역사에서 새록새록 기억할 수 있다.

총장으로 일할 때 나는 항상 주전자 이야기를 했었다. ‘주’는 우리가 이화의 고귀한 정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화의 브랜드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주인의식의 ‘주’ 자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각자 개성에 맞는 전문성을 키워가야 하므로 그것이 바로 ‘전’ 자다. ‘자’는 자긍심이다. 이화에 대한 자긍심,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이 있을 때 글로벌화 속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가진 기량을 펼칠 수 있다. 주전자에는 사랑의 단물이 담길 때 목마른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다. 때문에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물은 오늘 우리만 마시는 것이 아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부어줬듯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열심히 부어내려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화의 브랜드는 더욱 샘솟아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전 지구촌을 향해 산소 같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

# 인도네시아에도 주님을 향한 찬양 울려퍼지게

허용구 홍수정 (주영. 승진. 승현) 선교사



지난 번 부활주일을 맞아 이곳 인도네시아 쌀라티카 '해피센타(해피 브릿지 교회)"에서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흥 기도회"를 가졌다.

매주주일이 되면 이곳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설레곤하는데 16명의 기도 멤버 현지 대학생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 기쁘다. 부족하지만 우리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진 대학생들과 인도네시아의 부흥과 대학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날 '해피센타' (해피 브릿지 교회) 예배당에서 영감의 찬양과 부활절 설교로 예배를 드렸는데 '야니' 자매는 설교 후, 부흥기도회 시간 내내 울기만 했다.

야니 자매는 내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이 교회로 초대해 준 것 같아서 감격해서 기도 시간 내내 계속해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디안' 자매는 오늘 예배 중에 은혜를 주셨고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았는데, 누군가가 조그마한 쪽지를 자기에게 건네주었다고 하였다. 그 쪽지에 “내가 악 속하건대 성령의 불로 네게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리라”라고 써 있었다고 했다.

예전에 기도멤버들에게 나의 대학생 시절 기도 중에 “용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라는 분명하고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이후에도 종종 그분의 음성이 동일하게 들려온다고 얘기

해준 적이 있었다. 디안 자매는 그 얘기를 들은 이후 계속해서 자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계속 기도해 왔다고 하였다. 그 자매가 “평소에 저는 허목사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몇 일 전에 분명하게 제 이름을 3번 분명하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때 뒤도 돌아보았고 옆을 쳐다 보았지만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려왔기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했다.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고백하였다.

‘디안 뿐스페타’ 자매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흐느끼며, “평소에 아버지를 미워했었는데 오늘 부활주일 예배와 기도회 중에 주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고, 다같이 이 자매를 불잡고 눈물로 기도해주었다.

‘크리스티안’ 형제는 “최근 몇 달을 정말 나태하게 보냈고 영적으로 너무 형편없이 살아왔는데, 오늘 부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번 기도회 중에 주님께서 ‘상처’라는 단어를 떠올려주셔서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멜라니 자매가 통곡을 하며 우는 것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상처 받는 스타일이지만 어디에서도 해결방법이 없어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했다.

그 외에도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과 들었던 음성과 꿈의 이야기까지 서로 나누면서 서로 눈물로 기도와 위로를 해주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4월 한달 동안 해피센타 무슬림 어린이들과, 시골 현지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고산지대 어린이들

과, 협력하는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약 300개의 ‘부활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려 하지만 총 예산 120만 원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 열심히 기도 드리고 있다.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곳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세계기도대성회(WPA)가 열렸다.

제1회 세계기도대성회(WPA)는 30년 전에 한국에서 열렸고, 이제 30년만에 제2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것이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바국 예언처럼 물이 바다덮음같이 주를 인정하는 날이 임하길 기도하는 기도성회이다. 중보기도자들이 외국에서 3천 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3천명이 이 대성회에 참석하였고 5월 17일 인도네시아 ‘예수승천일’에는 자카르타 집회에만 10만 명이 모이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열리는 집회는 약 30만 명이 모였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2억 1천만 명으로 단일 국가로서는 최고로 많은 나라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귀한 기도를 통한 세계적인 연합 대성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역사적인 대회로 기록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 나라와 민족들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줄기를 비춰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220국가들에서 약 2만 명의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곳에 저희 주영이와 승진이도 이 어린이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세계를 품고 기도하였다. 가족 모두가 참석한 이번 있는 WPA에 특별히 내가 이 성회의 운영본부에서 섬김이로 섬기게 되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온 지 4년 차에 접어들게 되어 선교 보고차 한국을 일시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또 다른 귀한 만남의 기회들을 주님께서 허락 해 주실 줄 믿고 있다. 귀한 기회 되도록 기도부탁드린다.

# 2012 이화 명물 장터 큰바자회

지난 5월 17일(목) 아름다운 이화 교정에서 '흥겨운 장터'가 열렸다. 생활환경관 및 학생문화관 주변에 총 60개 부스가 설치된 이번 큰바자회는 대학, 과, 대학원, 지회 등 총 55개 동창회가 참가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풍성하게 이화 명물 장터를 펼쳤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이번 큰바자회는 화창한 햇빛과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등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각 동창회 임원들의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바자회를 찾은 많은 동창과 가족 고객들에게 알뜰 구매와 색다른 즐거움을 안고 돌아가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큰 바자회 행사는 수익금 일부가 베트남 전쟁 시 버려진 한국계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 바자 참여대학(원), 과, 지회

비자당일 품목 변경 있음

## 인문대

불문-의류  
독문-바지, 티셔츠  
중문-소야모피  
영문-의류(마담퀸)  
국문-식품류-간장, 참기름  
사학-기증물품  
철학-커피(hot, ice)-쿠키, 컵음료(콜라, 환타, 오렌지 등), 액세서리  
기독교학-소금, 풍기인견

## 사회과학대

정외-일양약품 브레인 300  
행정학-앙스모드  
문화정보-수제간장, 수분크림, 참기름  
신문방송-브레드 & Co-신라명과, 넥타이, MCM가방  
심리학-김밥, 샐러드 등  
사회복지-음식(주먹밥, 과일꼬지와과일 도시락, 쿠키), 수제비누, 천연화장품, 의류, 손가방, 문구  
사회학-신양촌(기능성이불, 베게, 요구르트, 간장, 화장품, 기능성손수건)  
경제학-장신구, 쌀

## 자연대

수학-파파야 코리아  
통계학  
물리학-동전과 카드지갑  
화학-김치, 국간장,(누룽지, 커피)  
생명-스카프, 가방  
**공대**  
건축공학  
컴퓨터-팔찌, 목걸이(액세서리)  
정보통신-가방, 핸드백, 옷  
**음대**  
피아노-일반의약품, 영양제(어린이 비타민제), 치약  
관현악-기증물품판매, 니트의류(라베르)

## 성악-가방종류(KT통상)

작곡-기증품, 깻잎, 명란  
한국음악-의류(티셔츠종류)  
종교음악-의류(볼치나)

## 조형대

섬예  
생미  
장미  
동양화-고창 유기농 된장, 이정혜악세사리, 이은경동양화가의부채  
서양화-그림소품, 악세사리(아나바다)  
도예-도자기소품

## 사대

교육-명란  
유교-액세서리(금속공예)  
초교-도자기(생활자기)  
영교-음식  
사생  
교공  
특교  
과교  
수교-화장품  
보교-화장품(헤라, 설화수 등),  
가방(여행용, 토드백등)

## 체육대

체육-가방(핸드백), 원두커피  
무용-타올  
**의대**  
간호대-경성오토비스무선청소기  
법대-풍기인삼, 풍기인견, 여성소품  
약대-입냄새제거치약, 액세서리(기증물품), 월비, 비타500

## 생활환경대

의직-골프웨어  
소인-도투락, 의류, 골프웨어, 이너웨어, 패션소품 및 쥬어리, 타조핸드백  
식영-이애란(북한음식연구소)북한전통

음식중 냉동순대, 식혜, 약과, 된장등. 웨빙음식코너(추억의당근머핀), 함양장뇌삼

## 경영대

경영학-자스민(준보석)  
국제사무-리디아스(의류)  
**대학원**-스카프, 넥타이, 의류

## 교육대학원

**국내지회**  
대구-기능성 스카프 외  
안산-그림, 건강기능식품, 가방  
제주, 전주, 순천, 창원, 청주, 대전, 인천, 부산, 수원

## 총동창회

卡拉-의류, 스카프  
예향-온보석  
신라구두  
예승통상-속옷, 양말  
고려홍삼  
송광스포츠-등산복, 등산용품  
사과반쪽-이동복  
미센주-여성의류  
영암 농산물

마희자-여성복  
낙도선교회-통영 건어물  
버즈비-천연화장품  
한국클락크 스미스제약-아토피 로션, 크림  
소호엔노호(이대점)-꽃

YWCA-EM제품  
대구 말린것  
**기증**

후라이팬-이순선(알프스) 100개  
가방-마희자(알프스) 20개  
인혜영 의류-안혜영(조소82) 5벌  
**알뜰코너**  
**기념품코너**

이화문인 산문 릴레이

## 무명순교자

이규희

국문60

소설가

1963년 동아일보 장편소설

〈속솔이뜸의 맹이〉 당선

소설집 〈황홀한 여름〉,

〈그 여자의 뛰박질은 끝나지 않았다〉 외 다수  
장편소설

〈속솔이뜸의 맹이〉,

〈그리움이 우리를 보듬어 올 때〉 외 다수

수필집 〈늘 푸르고 싱그러울 날은 언제?〉,

〈내 고백은 진달래 개나리로 피고〉 외

1996년 〈그 여자의 뛰박질은 끝나지 않았다〉로  
한국문학상수상

2010년 〈그리움이 우리를 보듬어 올 때〉로  
카톨릭문학상수상



우 물이 있는 네모진 안마당을 가운데로 하고 안채와  
바깥채가 맞물려 미음자를 이룬 조선조 후기의 덩그린  
한옥. 높직한 두별대 위에 솟아 앉은 안채는 아름드리  
홍송 대들보를 안은 삼간 대청마루가 시원스럽다. 열  
어제친 분합문 밖으로는 아득한 뒤편 풍광이 그윽하  
다. 구부러져 뻗어나간 나뭇가지에는 둥그런 배가 매  
달려 흔들거리고 튼실하게 설치된 덕 아래로는 주렁주  
렁 늘어진 청포도알이 말갛다. 능소화가 어우러져 돌  
아간 토담 밑에서는 사춘기 소녀의 목덜미 같은 상사화  
꽃더미가 연분홍 아지랑이를 뽐어대었다, 텅빈 그 안  
채의 건넌방에서 나는 〈속솔이뜸의 맹이〉를 쓴답시고  
가슴에 베개를 받치고 엎드려 깅낑거리다가, 문득 일  
어나 대청마루 끝에서 힘을 모아 외쳤다.

“엄니, 개구리는 운제 울어?”

“잉, 그건 아마 모 낼 찍일 꺼여...”

사람이 쉬치근해진다는 쉰 살을 갓 넘은 가냘픈 어머  
니는 두리두리한 두 살 터울 할머니와 사랑채의 뜰아랫  
방 봉당에서 맞방아질을 하느라 숨이 차서 혈떡거리는  
소리로 대꾸해 주었다. 고향에서의 일을 회상하게 될  
때, 나는 언제나 이 장면을 제일 먼저 떠올리곤 한다.  
무엇이건 묻기만 하면 척척박사로 선선하게 해결해주  
곤 하던 어머니. 더러는 할머니가 끼어들기도 했지만.  
특히 내가 글이 잘 풀리지 않아 죽을 쑤고 있을 때 두 분  
의 잡담소리가 귀에 살며시 스치기라도 하는 날엔 후다  
닥 뛰쳐 나갔다.

“시끄러워 쯧쯧쯧.....”

딸이라면 벼르장머리 없는 짜증까지도 마냥 좋기만  
한건지 두분은 소리도 제대로 못내며 웃느라 좀체로 새  
우젓눈을 풀지 못하던 광경..... 아마도 내가 가장 소중  
하게 보듬고 있는 나의 보물 1호지 싶다. 추억속의 내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고된 노역에 빠져 혁혁거린다. 실제의 삶이 그랬으므로.

시집오기 전 친정에서는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 보릿고개에도 콩만 다문다문 논 하얀 쌀밥에 토막 반찬을 먹었고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자랐다는 어머니는 이야기를 좋아해서 소설책만 끝없이 읽고 또 읽다가 귀한 건 필사본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단다. 고대소설 신소설을 한 고리작이나 혼수에 묻어 가져왔다는 그녀는 밤이면 간혹 어린 자식들을 팔 베개에 주루룩 뉘이고 끝없는 이야기로 자장가를 삼았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감동하여 몇 번이고 되풀이 듣고 또 들어도 번번이 베개를 적셔야 했던 건 <설홍전>이었다.

생 양가합친 오대 독자 종갓집에 맘며느리가 된 어머니는 친시할머니 친시할아버지와 양시할머니 양시할아버지, 상처하여 일년 전에 재혼한 까탈스러운 호랑이 시아버지에 녹의홍상 시어머니를 상전으로 모시는 노예와 같은 시집살이라는 함정에 텁병 빠져 버렸노라고 했다.

그 넓으나 넓은 뒤편의 한복판까지 나가서야 높직이 돌구어 위용이라도 뽐내듯 번듯하게 만들어 져 있는 장독대나 찬광, 곳간을 하루에도 수없이 드나들며 그 좋아하는 부추꽃이 발치에 채여도 그 거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볼 새가 없는 그녀였다. 어머니는 그렇게 늘 앞만 보고 뛰어야 했다. 상주하는 머슴에 심부름하는 아이까지 합치면 열이 넘어 도는 대가족의 끼니만도 벽찬 터에 쇠여물은 머슴들의 뜻이라 해도 개 되지 고양이 닭 등속은 모두 어머니 관할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천장까지 커커로 맨 선반 위 잠박에서는 누에들이 배고프다고 머

리를 내두르며 아우성이니..... 그 뿐인가,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 살 수는 없는 법. 그 많은 인종의 입성은 또 그 누가 책임을 질까? 침선엔 특히 손방인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사에 조수석만 지켰다. 그렇다고 바느질 솜씨만으로 해결이 되는 시대도 아니었다. 바느질 솜씨를 부릴 자료 자체가 귀했다. 목화를 심고 누에를 길러서, 씨아질, 자세질, 물레질을 하여 실을 자아내 베틀에 올라 앉아 피륙을 짜내야 하는 것이 그 시절 고달픈 여자들에게 막무가내로 주어진 중요 임무였다. 근동의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로 회자된 그녀는 문양까지 넣어 일반제품에 비해 배나 도톰한 명주를 수작업으로 짜내기까지 했다. 읍내의 향교에 관여하면서 초등학교 이사장이었던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뛰어난 직조와 침선 솜씨 덕분으로 온통 이목이 집중되었었다고 하고 서울의 한 친구는 특별히 굽게 자아짜낸 무명두루마기에 혹하여 자신의 고급 세루두루마기와 바꾸자고 조르는 걸 간신히 물리쳤다며 파안대소까지 하였다. 현출한 키에다 하얀 피부의 드문 미남형이었던 시아버지의 의관에 대한 관심사는 지대하다 못해 마침내 수의에까지 이르게 된다. 능직문양의 수직 명주로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문헌을 펼쳐놓고 월여에 걸쳐 제백사하고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지은 수의를 본 시아버지는 크게 만족했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 어머니는 가끔 편안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곤 했다. “할아부진 존 곳으로 가셨을거여, 그렇게 갖춰서 잘 입으신 분을 감히 소홀하게 대접은 못하는 법이니까.”

그런 며느리임에도 친정 아버지 회갑이 돌아와

그녀가 찹쌀 두말만 부조해 달라고 청했을 때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렇게 지독하게 하여 쇠락해 가던 가세를 시아버지의 불리어 나갔다. 가세가 좋아 져 간다고 그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일만 배가 되어 점점 산더미처럼 짓눌러올 뿐.

바깥 나들이는 시어머니 전담이어서 오일장 한번을 나가보지 못하고 높다란 담장 안에서만 촌각을 쪼개듯 쫓기며 가사노동에만 몰입해 온 그녀가 일생일대의 일탈에 오른 건 소식이 감감한 남편을 찾아서였다. 삼등완행열차에 삼남매를 데리고 그녀는 몇날 몇밤을 고생스럽게 달려서 눈보라 흑한 의산 설고 둘 선 쏘만국경지대에서 못볼 꼴을 보고 이내 돌아서야 했던 때였다. 귀국길에 들른 하얼빈의 시동생 집에서 신문연재소설을 읽고 난 그녀가 한숨으로 불어낸 말. “소설가나 만났으면 좋겠다. 내 얘기나 실컷 해주게.” 그래서 몇 해 지나 학교에 입학한 어린 딸이 희망단에 소설가라고 쓴 듯싶다.

오십 대 중반에 시아버지가 작고하자, 그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던지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고 야 말았다. 오리거리의 산너머 오랫골에 교회당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였다. 그럼으로써 스물 여덟 위나 되는 제례의 부담을 일시에 어깨에서 내려놓았다. 동지 선달 강추위 속에서도 사나흘 전부터 뺨갛게 언 손으로 놋그릇을 닦아야 하고 동네의 대소가가 다 모여서 음복을 할 만큼의 음식을 만드느라 밤을 번쩍번쩍 지새우곤 하던 제사였다. 자정부터 시작되는 그 철야행사는 면동이 번하게 터울 때서야 친척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돌아가지 않던가.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걸 준비하는 입장은 생각하면 철부지 내 소

견에 늘 형벌처럼 여겨지곤 했었다.

노예처럼 시작된 시집살이에서 소생 사남매와 부득이 맡겨진 파붙이 오남매를 함께 길러내며 구십성상을 살아내는 동안 어머니는 선견지명이 있는 몇몇한 경영인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어릴 적에 일을 전혀 몸에 익히지 않아 시집살이 가더고되게 느껴졌을 거라고 후회하듯 말하면서도 어머니는 나를 꼭 자기처럼 손끝에 물을 대지도 못하게 하며 키웠다.

결혼하여 부엌이라는 공간에 발을 딛고 섰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어머니를 절실히 떠올렸다. 서툴기만한 나에겐 시집살이가 예상외로 벅겹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내 어머니의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아직은 낯선 시댁 식구들의 기호와 주문에 어상반하게나마 맞추어 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득 참, 내 어머니는 무엇을 좋아했던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잡혀 오질 않았다. 선호하는 빛깔은? 음식은? 옷은? 아무 대답도 끝내 나오지 않았다. 아래도 내가 그녀의 총애를 받은 딸이라 할 수 있을까. 서로가 모공이 맞이어진 듯 공감하며 의지하며 지내온 사이가 아니었던가..... 물처럼, 공기처럼 없는 듯 있으면서 있는 힘을 다해 헌신 오직 헌신만이 전부였던 어머니의 자취가 뒤늦게 트인 나의 시야로 점점 더 선연하게 큰 모습으로 다가왔다.

언젠가 충청도 해미의 무명순교자 성지를 방문했을 때 세상 모든 이름들이 퇴색해 버리는 엄청난 블랙홀을 느꼈듯 나는 내 어머니의 터 없이 순결한 희생정신을 비로소 발견하고 눈이 부셨다.



## 대학(원) 및 과,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

지난 4월 19일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각 대학(원) 및 과,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간담회는 2011년도 총동창회 활동 보고와 2012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5월에 진행하는 많은 행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금년에 처음 개최하는 '제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많은 관심이 쏠렸으며 16대 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주관하는 '큰 바자회' 행사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 날 조종남 회장은 4년간 총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전임 제15대 김순영 회장을 치하하며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또한 총동창회 고문으로 동창회 발전에 공헌하며 봉사를 아끼지 않은 주영희, 장의순 전임 회장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도 마련하였다.

## 해외지회 동창을 위한 오찬 및 모교 캠퍼스 순례

6월 1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년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해외 지회 동창들을 위해 총동창회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모교 진선미관에서

열린 오찬회를 통해 조종남 회장은 해외에서도 귀한 시간을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는 동창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한마음으로 화합하며 발전하는 지회를 위해 기도하였다.

오찬 후 박물관과 ECC 빌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해외지회 동창들은 내년 동창의 날에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우정의 담소를 나누었다.

### 정기임원회

4월 12일과 5월 10일에 열린 정기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에 개최한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행사를 평가하고 5월에 개최하는 행사준비를 위해 논의와 협의를 하였다. 이 날 각 대학(원) 회장들과 총동창회 임원들은 서로 협심하여 많은 행사 를 품위있고 원활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6월 정기임원회는 5월 행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임원 및 고문, 회장단을 위해 조종남 회장의 초청 오찬으로 14일에 열렸다. 5월 동창의 날 등 많은 행사 평가를 겸한 이 날 임원회는 몇 가지 조언과 함께 시종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 2012 이화언론인클럽 정기총회

4월 25일 이화 · 삼성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된 제

12회 이화언론인클럽 정기총회에 김선옥 총장,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 조종남 총동창회장을 비롯, 언론영상학부 교수진이 참석해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를 축하하고, 이화언론인클럽 회원들에게 격려를 표했다.

이 날 KBS 지영서(가정관리 80), 이은숙(정외 84), 류인하(법학07) 동창 등이 ‘올해의 이화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언론직 종사자 동창들로 1997년 결성된 ‘이화언론인클럽’은 해마다 언론계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상을 보인 동문을 선정하여 ‘올해의 이화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 동창회 후원금 전달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가정과 62년도 졸업 동창들을 대표하여 박정희동창이 총동창회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 선교부 소식

### 제 9회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

지난 4월 28일(토) 오후 4시, 7시 반 두 차례에 걸쳐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이 모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날 공연은 모교 창립 126주년을 맞아 열린 총동창회 행사의 하나로 지난 2003년 초연한 후 올해로 9회 째이다.

조종남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리허설을 비롯하여 네 번 공연을 보면서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 이슬이 맺히는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것은 아마도 신은경 교수께서 부군이신 목사님과 영혼을 불어넣으며 기획한 무용에 그 제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연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공연팀을 치하하였다.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은 2004년 기독교 문화대상을 수상하였고 미국 보스톤과 뉴욕 등지에서도 성황리에 공연 되어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

을 주었으며 국내에서도 연세대학 대강당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도 공연되어 작품성의 높은 평가와 함께 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공연의 모든 수익금은 전 세계에 나가 사랑과 봉사를 하고 있는 140여 명의 이화 동창 선교사들의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다.

### 이화창립 126주년 기념 감사찬양 예배

5월 15일(화) 오후 6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26주년 기념 감사찬양 예배는 126년 전 스크랜튼 선교사를 통해 심겨진 한 알의 씨앗이 이제 이화라는 이름으로 2만 여명의 재학생과 19만 동창들의 거대한 나무로 자랐음에 감사한 예배 시간이었다. 이 날 인문대 선교부장인 김미순(기독 75) 동창의 대표기도,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성경봉독, 김선욱 총장의 축하에 이어 손운산 목사의 ‘따뜻한 경험, 흐뭇한 이야기’ 말씀과 함께 고형원과 부흥한국, 김도현, 이길승 님의 찬양이 있었다.



# 대학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 사회과학대학

회장 이양준(정외 70)

### 학장 및 각 과 학부장 초청 간담회

3월 28일 모교 ECC 케세이호에서 학장 및 각 과 학부장 초청 간담회를 가지고 학장 및 각 과 학부장으로부터 작년 후반기 이후 사회과학대학의 현황을 간단히 전해 듣고, 각 과 동창회 균황도 보고하였다. 이날 모임에서 사회학과 동창회가 사회학과 발전기금 1억 원 조성을 마무리하였다는 보고로 박수를 받았다.

5월 12일 2012 올해의 이화인 및 각 과 전임회장 초청 <서울 역사길 걷기>의 일환으로 사간동 현대 갤러리의 ‘김종학 전’을 관람하고 북촌 황생가 칼국수에서 오찬모임을 가진 후 트렁크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관람하고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하였다. 선재아트센터에서 군인을 소재로 한 사진전 ‘중간인’을 관람하기도 하였다.



## 생활환경대학

회장 임정희(가관 79)

### 아령회 봄야유회 성황리에 개최

동창회 아령회가 4월 24일 충남 청풍명월 담사를 겸한 봄야유회 행사를 리솜리조트에서 선후배 간 유쾌한 교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야유회에서는 (사)밝은청소년 이사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임정희 신임 회장의 취임 인사 및 유명희(가관 79), 최인순(의직 79), 이혜양(식영 79) 수석부회장의 2012년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다. 이 날 김취복(55) 고문은 구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임원진의 발족을 축하하며 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참신한 아령회로 거듭나길 당부했다.



## 약학대학

회장 정준순(약학 72)

### 제 31회 ‘화합의 날’ 개최

4월 4일 동창회 임원 및 합창단 28명이 정원 노인 요양 병원(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을 방문하였다. 박하영(28회) 문화부장의 진행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금 전달(4,210,000원) 및 약품 기증(정우신 약 34회)을 하였다.

전달식이 끝나고 약대합창단의 합창 공연과 한국 무용(까투리 무용단)공연이 이어지면서 요양원 노인들과 다 함께 춤과 노래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4월 24일에는 제 31회 ‘화합의 날’ 을 용산 가족 공원에서 개최하였다. 127명의 동창들이 국립중앙 박물관 팔각정에 모여서 한동주(32회) 지역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준순(23회)동창회장 인사말, 전병숙(21회) 선교부장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올해 40주년을 맞는 23회가 준비한 점심식사와 행운권 접수, 보물찾기를 진행하였다. 식사 후 각 기별 소개와 개인 및 단체 장기자랑, OX-게임, 짹짓기 게임 등을 하며 선후배가 한데 어울려 유쾌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자연과학대학

회장 변희숙(생명 73)

### 정기총회에서 회장단 교체

3월과 4월 정기임원회에서는 주로 학창에 관한 안건 토의를 했으며 5월 임원회에서는 6월 11일에 있을 정기 총회에 관한 안건 토의를 했다.



수학과 정기총회에서 한재욱 회장 후임으로 권숙교 신임회장이, 물리학과 정기총회에서 김민화 회장 후임으로 윤수한 신임회장이 결정되어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부회장이 일부 교체되었다.

4월 12일 대학교회 소예배실에서 이화가족새벽기도회가 있었다. 한국세계유학생 선교협회 문성주 목사의 설교와 자연대 동창회 임원 8명이 참석하여 특송을 불렀다.

5월 31일 동창의 날 행사 합창제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생명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동창들의 많은 협조와 합창연습으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지휘자 한재욱 동창, 반주자 유보연 동창 및 합창단의 모든 동창이 좋은 추억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 체육대학

회장 장혜란(체육 74)

#### 동창회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

4월 9일 건미회는 강남 파고다 아카데미 20층에서 장혜란 회장 및 회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동창회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박경실(78, 파고다 아카데미 대표) 동창의 건미동창회 사무실 무상 제공으로 체육대학 동창회 건미회의 활성화는 물론 체계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 날 현판식과 함께 하는 첫 번째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 대학원

회장 이남숙(79)

#### 동창회 40주년 기념호 발간

2월 29일 대학원 동창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호로 대학원 동창회보 29호를 발간하였다.

# 과·학부 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 간호학과

회장 김진향(73)

### 고(故) 이정애 선생님 58주기 추모 예배

5월 2일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고(故) 이정애 선생님 58주기 추모예배가 있었다. 고(故) 이정애 선생님은 1901년 8월 17일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학당에서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를 졸업하고 하와이 호놀룰루 Queen's College에서 유학했으며 1937년 조선을 대표하여 간호협회 회장자격으로 영국에서 개최된 ICN 대회에 참석하였던 분으로 1953년에는 나이팅게일 탄생 133주년 기념 표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간호학부 교수진과 학생들은 매년 고 이정애 선생님의 묘를 찾아 추모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번 58주기에는 교수 9명과 연구원 1명, 간호학과 동창 3명, 학생대표 5명 등 총 18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5월 10일 미국에 거주하는 남상애(10회) 동창이 간호학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억원을 기탁하였다. 이날 남 동창은 이화간호 역사

자료실을 방문하여 이화간호가 발전해 온 역사와 학창시절의 추억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 경영학과

회장 이봉학(81)

### 2013년 경영학과 창립 50주년 행사준비 모임 결성

2013년 경영학과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4월 2일 뉴서울 호텔에서 '이화경영 II' 모임을 가지



고 뜻 깊은 50주년 행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화경영 II' 모임은 2013년까지 1억 원의 장학기금 마련을 목표로 각 기수별 선, 후배들이 두 달에 한번 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동창 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창회 블로그(<http://cafe.daum.net/ewhaba>)를 새롭게 개설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창들의 소식은 물론 선, 후배가 하나의 공간에서 화기애애하게 정보를 주고 받는 소통의 장을 마련



하고 있다. 동창회장단은 5월 29일 한국창의과학재단을 방문하여 경영대학 교수이며 현 한국창의과학재단 이사장인 강혜련(80년) 동창의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을 축하하고 동창회 활동에 관하여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교육학과

회장/ 정미경(79)

### 동창회 정기총회 및 이화교육네트워크

#### 창립총회

3월 17일 교육관 김애마홀에서 동창회 정기총회와 이화교육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동창회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인 정미경(30기) 동창과 부회장 이계영(33기) 동창 및 6명의 신임 임원들이 소개되었다. 학부, 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동창 모두를 아우르는 이화교육네트워크의 창립총회에서는 김은산(59) 동창이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부대표 구자순(70) 동창과 운영위원들이 소개되었다. 앞으로 이화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동창들이 이화교육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의 재능 발굴 및 나눔 활동,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문화 조성사업 등 개인적,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5월 11일 교내 진관 101호에서 '스승의 날 모임'을 동창회가 주관하여 이화교육네트워크 모임의

행사로 개최하였다. 전, 현직 교수와 동창, 재학생 등 총 42명이 참석하여 학창시절 스승과의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스승의 은혜' 노래를 나같이 부르면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 국문과

회장 방기숙(77)

### 제 18회 '동창의 밤' 행사 가져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국어국문학과 동창의 밤'(격년제)이 5월 21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렸다. 바쁜 가운데도 150여명이 넘는 동창들이 반가운 만남을 가졌으며, 한국웃음전략연구소 황병철 이사의 사회로 진행한 2부에서는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노유정(10학번), 이수림(10학번) 두 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환갑과 칠순을 맞은 동창들도 모두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 제 18회 이화여대 국어국문학

일자: 2012년 5월 21일(월) 17:30

장소: 롯데호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환영**



**독문과**  
회장 이정화(74)  
**신입 동창 환영회 및 정기 총회 개최**

4월 12일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이정화(8기) 동창을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는 신입 동창 환영회를 겸 한 것으로 그동안 수고한 김영호 전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입 동창들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불문과**  
회장 장혜경(73)  
**총회에서 ‘독도 문제’ 관련 특강**

4월 18일 총회를 이화여자대학교 ECC센터 이삼봉홀에서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독도 문제와 함께 일본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동해 표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세계 동향에 대해 주성재 교

수(동해연구회 부회장)의 특강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30주년을 맞은 불문과 22회 동창 선배들이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따뜻한 시간도 가졌다.



**보건교육학과**  
회장 이경옥(70)  
**내년 50주년 기념식 위한 이사회 모임 가져**

2월 21일 보건교육과 50주년 준비를 위하여 고문, 회장, 이사 등 50여명이 모여 친목의 시간을 가졌으며 4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2월 모임 결과보고와 5월 17일 이화바자 행사 참여 물품 선정을 논의하였다.

리더십이 탁월한 7대 이경옥(4기) 회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모임을 갖고 있는 동창회는 현재 5,000만 원 이상의 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하여 2억 원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5월 17일 총동창회 바자회



위해 최수복(7기),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부인) 상임 이사가 추천한 전라남도 특산물(맛좋고 건강에 좋은 미역과 다시마 국수 등)과 가방, 화장품으로 바자 물품을 결정하였다. 바자회에서의 얻은 수익은 모두 장학기금에 쓰일 예정이다.

### 사학과

회장 이혜옥(74)

#### 두타산 삼화사 답사

3월 22일 청(淸)에서 3월 사학과 정기 간사 모임을 가졌으며 4월 17일 동창간사회 봄답사로 두타산 삼화사 답사를 하였다. 매번 하는 답사 여행이었지만 이날은 특히 두타산의 청량함과 삼화사의 고즈넉함이 어우러져 선후배간의 넉넉한 우정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5월 24일 청(淸)에서 5월 사학과 정기 간사 모임을 가졌다.

### 서양화과

회장 김효정(77)

#### 신입동창 환영회

4월 13일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동창회 임원들은 교수 및 강사, 재학생과 함께 신입동창 환영회를 가졌다. 이 날 환영회는 오찬과 게임을 비롯하여 조별로 담소 시간을 가지는 등 스승과 선후배 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4월 19일에는 최유원(4학년)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옛 은사들께 점심을 대접하며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 의류학과

회장 이명숙(의직 75)

#### 재학생에게 제2회 동창회장상

5월 21일 이명숙 동창회장이 재학생 6명에게 제2



회 의류학과 동창상과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의류학과 최혜선, 이인성 교수의 지도로 개최한 메이데이 학생 작품전에서 우수작 6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이 날 장연순 섬유예술학과장 및 이명숙회장, 우미형(77), 이옥희(81), 유정희(83), 이정립(84) 동창 등이 참석하여 후배들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하며 전시를 둘러보았다. 시상식 후 간담회에서 동창회의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 유아교육학과

회장 임희옥(76)

### 스승의 날 기념 행사

동창회는 매해 전례대로 5월 둘째 주 토요일 힐튼호텔에서 퇴직 및 현직 교수님들을 모시고 스승의 날 기념 오찬을 하였다.

신상인 부회장의 사회와 김신영 선교부장의 기도, 임원진의 찬양으로 예배 후 행사를 진행하였으



며 이 자리에는 역대 전임회장인 김영주 사대동창회장, 이순례 강남대 사대학장, 박혜경 동덕여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 언론홍보영상학부

회장 박화숙(74)

### 2012년 정기총회 및 49회 신입 회원 환영회

5월 7일 정기총회를 이화삼성문화회관 8층 동창회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신입회원 환영회를 겸한 이날 총회에는 김동철, 안광식, 윤희중 은퇴 교수와 모교 김영욱 학부장, 최선열, 유의선, 김훈순, 유세경, 안순태, 임소혜 교수 등과 50여명의 동창들이 참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박화숙 회장의 개회 인사에 이어 김영욱 학부장의 인사가 있었고 48, 49회 신입회원 94명을 대표

한 김성수, 안소정 동창의 인사와 동창회 장학금 전달이 이어졌다. 2012년 1학기 장학금은 이원경(방송영상학과 4년), 이은경(방송영상학과 3년) 학생이 받았다. 또한 졸업 30주년을 맞은 19회 동창들을 축하하고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이경선(충주 늘푸른 용양병원 및 성남 늘푸른 요양원 대표)동창을 소개했다.

이어 동창회는 언론학의 명문인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언론학 학술, 교육의 발전에 탁월한 공을 세운 학자들에게 수여하는 2012 닐슨상을 외국인으로는 처음 받은 최선열 교수를 축하하고 수상 소감을 들었다. 김동철, 안광식, 윤희중 은사께서도 이화에서 보낸 시간을 회상하며 사제의 만남을 기뻐하였고 라인댄스를 마지막으로 총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4월 23일 동창회는 <시니어 저널> 제 20호를 발간, 동창들에게 발송했다.

## 조소과

회장 심인자(74)

**동창회, 이화조각회 통합기념 행사 및 사은회**

4월 17일 모교 진선미관에서 열린 기별 간사모임에서 동창회와 이화조각회가 통합된 것을 기념, 축 하하고 앞으로 동창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 임원진 소개와 심인

자신임회장의 2012년도 동창회 사업계획 발표, 새로운 안건 토의 등이 식순에 따라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은 최병상, 김봉구, 원인종, 박숙영, 김종구 교수 등 전, 현직 교수의 고견을 들으며 사은행사를 함께 가진 뜻깊은 자리였다.

한편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안혜영(82) 동창은 졸업 후 의류 브랜드를 설립, 한국섬유패션대상 디자이너 명품 부문을 수상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안혜영 브랜드는 정교한 FITTING과 감도 높은 디자인으로 삶의 자신감과 여유를 즐기는 여성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 남가주지회

회장 김정순 (간호 75)

### 2012년 사업계획 수립, 이사회에서 통과



3월 9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제 1회 임원회를 열고 5월 19일 남가주 합창단 정기공연, 6월 2일 Huntington Library 나들이, 9월 총장배 골프대회, 10월 건강과 재정 세미나, 11월 1일~ 4일까지 밴쿠버 개최 북미주지회연합회 참석, 12월 16일 정기총회 및 송년 파티 등 주요 일정과 L.A. 회원 증강을 위한 포인트 제도 도입과 연말 포상, 동창회 근조기 마련, 동창회 60년사 편찬을 위한 계획 수립, 동창회 모임처 마련안 등 2012년도 행사 및 사업계획에 대한 김정순 회장의 보고가 있었다.

3월 20일, 부에나파사간에서 열린 제 2회 임원회에서 동창 회원 명단 update, 회원 확보를 위한

포인트 제도, 동창회 재정 등을 논의하였고 3월 24일에는 가든 스위트호텔에서 박화자(간호 66) 이사장 및 18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상반기 정기이사회를 개최, 동창회에서 상정한 모든 안건을 통과시키고 행사 및 사업계획을 인준 받았다. 전년도 회계 보고 후 서성애(약대 75) 동창을 새 이사로 영입하였으며 동창회 근조기를 마련하자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부이사장 겸 서기이사에 문금숙(국문 63)동창, 회계이사는 김주경 동창이 맡았다.

4월 16일 1300여 동창들에게 동창회보(4월과 11월 발간)를 발송하였고 5월 19일에는 남가주동창합창단이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제 9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박신실(성악 93) 동창의 지휘와 구교진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30여 명의 단원들이 성가와 가곡을 열창하여 400여 명의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몬트리올지회

회장 이채화(무용 76)

### 사슴농장에서 정기모임 가져

5월 31일 몬트리올 동창들과 가족 19명은 몬트리올 근교에 있는 사슴농장에서 5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건강자연식으로 마련한 오찬 후 게임을 하고 모교 기념품을 선물로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날 박복길(교육 60)동창이 지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였으며 김춘희(불문 61)동창의 졸업 5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 미네소타지회

회장 서윤순 (작곡 79)

### 총회에서 새 회장단 선출

2012년도 총회를 5월 18일에 열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이사장에 주재강, 신임 회장에서 윤순 (작곡 79), 부회장 김성숙, 총무 홍성주, 회계 박은경, 섭외 황성숙, 한진혜 동창을 선출하였다.

### 부산지회

회장 하은숙(동양 69)

### 팔순 맞이 동창 축하 행사

5월 1일 코모도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팔순을 맞은 이영숙(약학 57), 김순명(약학 57), 정진

자(가정 57) 동창의 팔순 축하 행사를 하였다. 축가와 케익 커팅, 꽃다발 증정, 와인축배가 있었으며 또 전영숙(성악)동창의 시를 읊는 것 같은 축가가 있었다.

팔순 맞이 동창들은 부산지회의 역사와 발전을 설명하며 참석 이사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담례로 케익을 선물하였다.





### 애틀란타지회

회장 조성숙(가정 64)

#### 평안하고 고귀하게 보낼수 있도록 봉사

동창합창단이 5월 6일 정소영(영문 62) 단장의 작사찬송 12곡을 봉헌하는식에 참석하였다. 찬송 12곡 중에는 정동창의 부군의 작곡도 포함되어 있어 더 뜻깊은 자리였다.

한편 홍혜진(정외 )동창은 미선호스피스를 3년 전에 설립하여 가정에서 간호가 어려운환자들을 직접 돌보며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고 고귀하게 보낼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다.

### 오레곤지회

회장 김미진 (도예 79)

#### 동창회 활성화 위해 동창 찾기 시작

4월 10일 모임에서 앞으로 동창회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 숨은동창들을 찾는 첫 번째 행동지침을 결의하고 현지 신문지상에 모임을 알리기로 하였

다. 또한 좀더 지역 봉사와 지역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 날 참석자는 김미진 회장을 비롯, 문수재(가정 55), 이영희(가정 63), 박상주(불문 63), 안희숙(국문 65), 김평화(사회 68), 신귀현(교육 68), 손영의(교육 72), 이구희(영문 80)동창 등이다.



### 오스트리아, 독일지회

회장 이순애 (체육 80)

#### 한인문화회관 오픈식

5월3일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한인문화회관 오픈식과 함께우리나라 초대 영부인 프란체



스카 여사(비엔나 출생)의 길 명명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 참석한 전 국회의원 박선영(법학 78) 동창을 비롯해서 프란체스카 여사의 며느리인 조혜자(불문 64) 동창 및 손성혜(교육 64), 이영희(법학 81), 봉지희(섬예 85), 박상희(체육 96) 동창, 그리고 독일/오스트리아 지회장이자, 프란체스카 여사 스토리 작가인 이순애(체육 80) 동창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1953년 제 1호 이화여대 명예박사를 수여받았다.

### 오타와지회

회장 이연숙(간호 72)

정기총회 열어 임원 교체



6월10일 2012년 정기총회를 박은경 동문 자택에서 열었다. 회장단에서 준비한 맛있는 저녁 식사와 2011년도 활동 보고와 회계 보고가 있었고 여러가지 건의 사항과 내년 행사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날 지난 한해 총무로 많은 수고를 한 정혜경 동창 후임으로 신임 박진희 동창의 소개가 있자 참석 동창들이 많은 박수로 격려했다.

### 인천지회

회장 황혜숙(국제사무 80)

매월 23일을 ‘동문의 날’로 정해

동창들 간의 소식과 친목을 도모하고 지회 활성화를 위해 매월 23일을 <동문회의 날>로 정하였다. 작년 12월에는 특별히 서울 동숭동에서 공연하는 김정옥 선생님의 100번째 연출작품인 "흑인 창녀"를 위한 고백"을 단체관람하며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 일본지회

회장 정태영(생활미술 69)

### 90세 맞이 동창 축하회 열어

5월 31일 동창회를 열고 90세를 맞이하는 사사끼 헤미(문과 42)동창의 90세 축하연을 열어 축하하며 신임 회장을 선출하였다.

## 자카르타지회

회장 민경례(불문 76)

### 정기 동창회에서 회갑 축하연

5월 31일 Pondok Indah Apartment Function Room에서 정기 동창회를 열고 후배들이 두 선배(사기숙 피아노, 이은애 작곡)의 회갑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국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의 회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 동창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어 덕분에 동창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7월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김형주(독문 85) 동창에게 귀국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 청주지회

회장 김상기(수학 69)

### 경제적 어려움 겪는 이웃 도와

5년 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 봉사를 하고 있는 지회에서 올해도 5월 7일 청원군에 사는 박관순씨 댁을 방문했다. 이 가정의 부인은 루프스병을, 네 자녀 중 세 명은 척추 층만증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날 50만 원의 장학금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받고 축복 누리기를 함께 기도하였다.

## 토론토지회

회장 문아연 (사회 72)

### 2012년 토론토지회 정기총회

2012년 3월 5일 더프린 서울관(채현주 교실 83)에서 40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새 임원진 소개, 전 회장께 감사패 전달에 이어 2012년도 활동 계획 및 주력 사업으로 정규적인 행



사(횃불회, 정기총회, 여름야유회, 연말파티) 외에 동호회 및 Web Site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뜻 있는 많은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모교 장학금 '선배라면 이어달리기 캠페인' 1주자로 동참하기를 결의하였다. 이어서 11월 (1일~4일)에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북미주지회 연합회에 관한 안내와 많은 동창들의 참가를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이화인' 이시며, 이화 국제재단 창립 이사이셨던 고 임길재박사님 추모예배를 드렸다. 문아연 회장(사회72)의 고인에 대한

약력 소개, 이성학(간호59) 동창이 '가까이서 지켜본 임 박사님의 삶'이란 주제로 임 박사님을 회고했으며, 최경자(영문63) 목사님의 기도로 추모예배를 마무리하였다.

### 파리지회

회장 송미영(불문76)

### 신록이 푸르른 6월 재불 이화 동창회 야유회

매년 6월 첫째 주 토요일은 재불 이화 동창회가 야유회를 갖는데 이번엔 신록이 푸르고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파리 외곽에 있는 유원지(base de loisir de saint quentin en yveline)에서 이화 동창들과 그 가족 40여명 모여서 푸짐한 음식과 즐거운 오락 시간을 가졌다.

야유회를 통해서 그간 동창들의 안부와 새로운 동창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가졌다.



## 모교소식

### 이화 창립 126주년 기념식 거행

5월 31일 대강당에서 '거행한 창립 126주년 기념식'에서 김선우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 이화를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시키고자 글로벌 탑 파이브(Global Top 5s) 사업에 착수하고,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계승하여 제3세계 여성인재 교육프로그램 EGPP와 EGEP를 확대, 신설해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글로벌 여성 네트워크 만들기에 주력해왔다"며 "이제 우리는 126년간 이화가 수행해온 역

할을 이제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시켜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화는 전세계 여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의 허브로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한국 여성 교육의 산실에서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 향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 할 것"이라 선언했다.

김총장은 이를 위한 과제로 ▶이화의 위상과 지향에 있어 여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고 모두를 위한 진정한 변화를 축발하고, ▶대학으로서 이화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이화가 해야하는 역할에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펼쳐나가는 진정한 도전을 시도하며 ▶인류공동체에 대한 이화의 책무로서 여성의 인간화를 전 세계 곳곳에 확산시켜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0년, 20년, 30년 근속 교직원 표창과 제14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에 미국 하와이주립대 동아시아어문학과 한국문학 전공의 김영희 교수(영어영문 64년 졸업)의 시상 및 제8회 '이화학술상'에 최진호 교수(대학원 바이오융합과학과)의 시상이 진행됐다.

### 이화창립 126주년 축하의 향연

이화 창립 126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창립기념식이 있던 31일(목)에는 ECC에서 '이화 126주년 ECC Valley 한마당'이 개최됐다. 특히 이번 공연은 기념식 직후 대강당에서 ECC까지

## 모 교 소 식



본교 한국음악과 재학생 20명으로 구성된 한국음악연주단의 대취타 행진으로 시작해 이색적인 풍경을 선사했다. 이어 혼악합주 '천년만세', 판소리 '홍보가' 중 박타는 대목 공연과 본교 국악오케스트라인 이화국악관현악단의 '참 아름다워라' 연주,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져 이화의 창립을 축하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연 외에도 음악대학은 5월 29일 대강당에서 '이화 126주년 대음악회'를 개최했다. 김선옥 총장, 조종남 총동창회장, 채문경 음대 학장을 비롯해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음악회는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변화—소통, 나눔, 섬김'을 주제로 열렸다. 주제에 맞게 이화구성원 외에도 러시아 대사 및 관계자, 이화를 아끼고 지원하는 많은 '이화 가족'을 위한 나눔의 장으로 마련됐다.

### 스웨덴 실비아 왕비 모교 방문

5월 30일 '스웨덴 실비아 왕비와 한국 여성리더와의 만남'을 개최했다. 아령당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스웨덴과 한국의 수교 이래 최초로 국빈 방한 한 스웨덴 실비아 왕비(Queen Silvia)가 본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각계 여성리더들과 만나 여성정책 및 리더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혀와 성사됐다.

이 자리에는 김선옥 총장을 비롯한 교내 인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손지애 아리랑국제방송사





장,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신혜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이해경 서울복지재단 이사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신경림, 남윤인순 19대 국회의원 등 각계를 대표하는 여성 리더 9인이 함께 해 여성 정책과 노인복지, 학생 교류 등 다양한 주제를 비롯 양국 공동 학술대회 개최, ODA와 연계한 젠더 정책 진행, 학생 교류가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선욱 총장은 “실비아 왕비의 이화여대 방문은 각 분야 여성 1호를 배출한 이화와 여성정책의 세계적 으뜸 국가인 스웨덴, 그리고 한국의 여성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각계 여성 리더들이 함께 만난 뜻 깊은 자리로 특히 창립 126주년 기념일

을 하루 앞두고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화답했다.

오찬 후 실비아 왕비는 ECC 극장에서 개최된 '스웨덴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본교 재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이화 한국음악연주단의 대취타 행진과 함께 아령당에서 ECC까지 가는 길에 왕비의 요청으로 재학생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999년 엘리자베스 여왕 방문을 비롯하여 메리 매킬래스 아일랜드 대통령(2005년), 실비아 카트 라이트 뉴질랜드 총독(2006년), 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2009년), 미셸 바첼렛 칠레 대통령(2009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2010년), 올해 3월 방문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까지 세계 여성 리더들의 본교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 산학·연구의 새장을 열어갈 산학협력관 기공식 개최

본교는 5월 31일(목) 세계적 화학기업인 솔베이 와의 글로벌 R&D 센터인 산학협력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산학협력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5,785.22m<sup>2</sup>(약 7,800평) 규모로 세계적인 화학 기업 솔베이와 함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의 장이자 미래과학을 선도할 새로운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산학협력관에는 솔베이 R&D센터가 들어서며, 이외에도 산학협력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 서부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이 자리하게 된다. 또한 교내 각 관에 분산되어 있던 산학 연구공간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됨으로써 공동연구를 통해 긍정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날 기공식에는 김선욱 총장을 비롯 장명수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솔베이 Vincent De

Cuyper 그룹이사, Roger Kearns 아시아지역 사장,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형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 종합과학관 D동 봉헌식 거행

본교는 5월 23일(수 · 오전10시)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추진한 종합과학관 D동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가졌다.

종합과학관 D동은 지상 7층, 지하 3층, 연면적 9,914.26 m<sup>2</sup>(약 3,000평) 규모의 건축물로, 자연과학대학 각 전공 실험실, 연구실과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독서실 및 학생회실, 자연대단과대학방 등이 위치한다. 기존 종합과학관 A · B동 사이에 위치한 종합과학관 D동은 A · B · D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으며, 동선도 효율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건물의 외관은 계단식 형태로, 각 층에서 옥상조경이 조성된 발코니로 바로 나갈 수



산학협력관 신축 기공식 2012. 5. 31(목) 이화여자대학교



있도록 계획되어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욱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합과학관D동 건축을 통해 이화의 과학 인프라가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다"며 "노벨상 1호의 꿈을 갖고 이곳에서 더욱 많은 연구가 진행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본교 윤후정 명예총장, 이화기장 수상

모교 윤후정 명예총장이 '이화기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화기장은 이화여고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 이화 정신의 귀감이 된 이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동창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이다. 이화여고 측은 윤후정 명예총장이 "반세기 이상 한국 여성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51년 이화여고를 졸업한 윤 명예총장은 Northwestern 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고 50여년 동안 이화여대 교수, 총장, 이사장, 명예총장으로 봉직하며 반세기 이상을 한국 여성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시상식은 5월 30일(수) 10시 이화여고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이화여고 창립 126주년 기념식에서 거행됐다.

###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모교 석좌교수로 임용

본교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를 음악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정경화씨가 국내 대



학의 강단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경화씨의 모친 故이원숙 여사의 모교이기도 한 본교는 19세기 말 서양 음악 전문 교육을 시작하고, 1925년 한국 최초로 음악과를 설립하는 등 지난 120여년간 한국 음악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와 같은 음악적 역량으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를 교수로 임용하게 됐다.

정경화씨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어머니의 모교에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며 "어머니의 모교인 이화여대의 석좌교수가 된 것이 줄리어드 교수에 임용될 때보다 더욱 가슴을 울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본교는 정경화씨가 세계적인 연주 활동 및 녹음, 한국의 클래식 음악 발전과 후학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음대 내의 연구실 제공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글. 모교기획처홍보과

## 이영숙 (약학 57)

부산 코모도 호텔 회장인 이 동창이 지난 4월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 부산본부에서 발표한 30년 이상된 '기부천사' 명단에 포함되었다. 1982년부터 매월 어린 이재단에 일정금을 후원해온 이 동창은 그밖에도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결핵협회, 체육회, 학교 등 20여 개 시민, 사회단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 권경수(영문 63)

이대 명예교수이며 전국 가톨릭 여성연합회 이사인 권동창이 지난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세계 카톨릭 여성연회 아태총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총회 주제는 '사랑 안의 실천(Love in Action)'으로, 생명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교육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개선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의 중심 가치를 형성해 준다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 홍상희 (사학 63)

5월 30일 기독교회관 소강당에서 저서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하버드 교수 엄마의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 박정자 (신방 61입, 2004 졸업)

연기 인생 50년을 맞아 5월 4일~13일까지 안국동 갤러리 '아트링크'에서 <박정자 전>을 가졌다.

## 최병화 (체육 66)

세계 170여 개 국 배낭 여행가로 최근 3개월 동안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나우에, 나우루, 투발루, 키리바티를 한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다녀왔다. 태평양의 아름다움을 전할 전시회가 6월 18일~6월 25일까지 '문학의 집 서울'에서 열렸다.

## 이영강 (국문 66 / 필명 김영강)

미주에서 소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 동창이 3월 1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JJ Grand Hotel에서 소설집 "가시꽃 향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 곽연(서양 67)

지난 4월 '삼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 김영숙 (약학 67)

(사)가정문화원 원장인 김 동창이 최근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이 사회의 미담/선행 사례를 널리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우정선행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 이배용 (사학 69)

정년기념문집 봉정식이 3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에서 열렸다.

## 이주남 (영문 69)

지난 3월 15일 이화 동창 문인회 정기총회에서 제 2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김현자 (무용 70)

5월 16일~17일 서울 동숭동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한국 무용의 대가 김 동창의 '김현자의 춤 60년-マイライフ' 공연이 있었다.

### **안정옥** (의학 73)

미국 LA에서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는 안 동창이 5월 30일 이대 목동병원에서 의과대 교수 및 의사들을 위한 특강을 하였다. 이 날 특강주제는 현재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주의력 결핍과 과다행동장애(ADHD)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의사들이 ADHD를 올바로 이해하고 치료법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 **이미경** (영문 73), **김금래** (사회 75)

제 19대 국회의원인 이 동창과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 동창이 5월 30일 이화여고 창립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하였다.

### **박화숙, 이재민** (언통영 74)

여수엑스포 기간인 6월 2일~3일, 여수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극단 '퀸 씨어터'의 세익스피어극 각색 <한여름 밤의 꿈>에 출연했다. 뮤지컬 <한여름 밤의 꿈> 공연은 여수엑스포 초청 공연으로 객석 1천석의 대공연장이 만석을 이룰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 **한미영** (동양 76)

한국여성발명진흥협회장인 한 동창이 5월 3일~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세계 여성 발명품 대회'를 개최하였다.

### **신혜** (섬예 78)

미국 올랜도에서 활약하고 있는 섬유 디자이너 신 동창의 이야기가 명망 있는 잡지 'orland arts' 카버 스토리로 소개되었다.

### **임영란** (조소 78)

5월 4일~7일 동안 서울오픈아트페어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 **정현숙**(서양 78)

지난 3월 독일 칼슈리에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 **조은미**(우용 78)

이대 교수이며 혁신적인 안무와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한국 현대무용계를 이끌어온 '현대무용단-팀'의 예술감독인 조 동창은 5월 12일 이대 삼성홀에서 '현대무용단-팀'의 제5회 [Young Dancer Young Choreographer](젊은 무용수 젊은 안무가) 공연을 가졌다. 2006년부터 시작된 신작무대로 젊은 세대 무용가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안무스타일을 소그룹 창작을 통해 활성화시키기 위한 팀의 기획공연이다.

### **조기주**(서양 79)

지난 4월 '한벽원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 **한명옥** (무용 79)

2009년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었던 한 동창이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 감독으로 취임하였다.

### **권은희** (동양 80)

4월 25일~5월 1일까지 서울 관훈동 'K 갤러리'에서 'Dancing on the Moon'이라는 제하로 권은희 개인전을 열었다.

### **강정숙** (사학 81)

제 5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2천만 원을 수여받았

## 동    창    소    식

다. 2012년 5월 11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수여식이 있었으며, 박사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제의 식민성 연구: 조선인 '위안부'를 중심으로>이다.

### 정혜진(무용 82)

중요 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이수자인 안무가, 정동창이 5월 17일 임기 3년인 서울예술단 예술감독에 임명되었다.

### 김연수 (독문 87)

독일의 상호문화적 독문학 학회 주최로 지난 3월 12 일~ 15일 일본 교토 레츠메이칸 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 (주제: 서양 속의 동양, 동양 속의 서양)에서 <동양에서의 괴테 – 한국의 경우: 일제 강점기 한국에서의 괴테-봄' 현상에 관하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 김희은 (무용90)

부산 동의대 체육과학대학 운동처방재활학과 부교수인 김동창이며 작년과 올해 부산국제무용제 위원

장을 맡고 있다

### 이미선 (성악 90)

지난 3월 2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 18회 <신춘가곡의 향연>에 출연하였다.

### 정현정 (독문 90)

지난 3월 일본 동경대학 총합문화연구과 초역문화 과학전공 비교문화 비교문화 코스를 수료하고 문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 박정석 (언홍영 94)

음식을 주제로 한 여행서 <열대식당–먹고 마시고 여행할 너를 위해>를 시공사에서 출간하였다.

### 김수진(동양 96)

KB금융그룹 CI 담당 과장인 김동창이 일본 인쇄 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일본 캘린더 전시회'에서 2년 연속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일본 캘린더 전시회'는 일본 4대 전시회 중 하나이다.



### 2012 '자랑스러운 이화인'

### 김영희(영문 64) 동창

5월 31일 모교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선정된 김동창은 해외에서 한국학 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하와이주립대 동아시아문학과 교수이다. 김동창이 개발한 한국학 교재와 커리큘럼은 해외 한국학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창은 미국 인디애나대 석사와 코넬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 김은영 (약학 96)

지난 5월 16일 스위스계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첫 한국인 지사장으로 김 동창이 임명되었다. 세계 14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노바티스 그룹에서 김 동창은 한국을 전 세계 지사 가운데 성장을 1위 국가로 안착시킨 역량을 인정받았다.

### 오정선 (조소 96)

3월 21일~4월 11일 포스코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다.

### 이정애 (사학 96)

미국 하버드대학교 니먼 펠로우로 선정되었다.

### 이원경 (섬유예술 02)

3월 12일~5월 11일까지 City Hall, Philadelphia에서 전시회를 가졌으며 4월 14일~6월 2일까지 갤러리STL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 김선주 (피아노 98)

5월 13일 영산아트홀과 5월 18일 대구 수성아트피아무악홀에서 김선주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다.

### 김영교 (중어증문 02)

한국 언론 최초의 홍콩 주재 영문특파원으로 '연합뉴스'가 파견한 김 동창이 현재 홍콩에 상주하면서 경제관련 영문뉴스를 전담하고 있다.

### 신모란 (성악 02)

이미선, 신모란 두 동창이 지난 3월 23일부터 시작된 제14회 <한국소극장 오페라축제>에서 '5월의 왕 노바우(브리튼)-예울음악무대'와 '극장이야기-울

엄마 만세(도니제티)-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에 각각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 이승아 (시각정보디자인 03)

이 동창이 감독, 각본, 편집한 단편 영화 'In SHAPE' 이 Tricycle에서 주최하는 2012 부다페스트 단편영화제 <2012 BuddhaFest Short Films Showcase>의 본선에 진출, 단편 영화제에서 입상하였다.

### 홍은아 (체육 03)

7월 27일 개막하는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축구 종목 주심을 맡았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여자 축구 준결승전 주심을 맡았던 홍 동창은 모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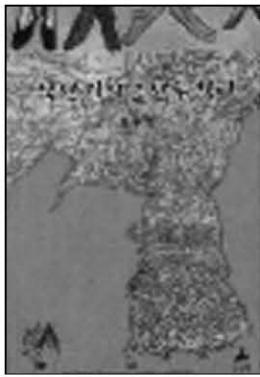
### 최은주 (한국음악 04)

(사)한국정악원 사무국장, 한국국악교육학회 이사, 아시아 예술학회, 한국야작회 연주이사, 잉어질소리 모임 회원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인 최 동창이 5월 1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해금독주회를 가졌다.

### 정다은 (통번역대학원 10)

뉴욕에서 1세기 전 하와이로 이민온 한인 여성의 삶을 그린 연극을 연출한 정 동창이 뉴욕 현지 라디오 방송과 국내언론에 보도되어 호평을 받았다.

## 동창이 펴낸 새책



### 정연희(국문 58)

소설/ 시선사

#### 빌려온 시간

이 소설집에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 세계 속의 인간 존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한 ‘빌려온 시간’, ‘날은 날에게 말하고’, ‘한나절’, ‘섣달 열이 레’, ‘입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등 모두 7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 윤숙자(국문 63)

수필/ 선우미디어

#### 그 마음 그대로

구불구불 휘어지고 앞이 막힌 인생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와 혼을 넘긴 저자의 인생경험이 담긴 이야기와 더불어 삶의 통찰력이 빛나는 작품들이 실려 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풍경과 더불어 담담한 삶의 이야기를 전한다.

### 윤수영(국문 65)

수필/ 소소리

#### 낯선 길의 조선을 찾아

겉으로는 중국인이지만 한민족의 빛줄을 품고 살아온 조선족의 당당한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

### 이주남(영문 69)

동시집 / 문학과 문화

#### "뭐라구요 오늘이 토요일 이라구요"

〈햇빛에 말 걸기〉, 〈오아이오에서 며칠을〉 등을 펴낸 시인 이주남의 동시집이다. 어린이의 자유로운 상상과 말씨와 행동, 생각을 이야기하듯 펼쳐놓은 동시 43편이 담겨 있다.



### 조한숙 (국문 69)

수필/에세이문학출판부

#### 네프로네피스가 있는 풍경

저자의 두 번째 수필집. 이 수필집에는 L, 서툰 농부의 추억 LL, 매화 한 가지 새겨 넣고 LLL, 양재천의 오월 LV, 월든 숲 속의 소로 V, 연암의 실루엣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안성희 (국문 88), 원은영 (국문 89), 황세레나 (국문 90)

한국어/아름다운 한국어학교

#### 아름다운 한국어 4-1

아름다운 한국어(Beautiful Korean) 4급 숙제. 생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담화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활 관련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 수 있으며 보다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어휘와 표현 등을 확장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했다.

### 안성희 (국문 88), 황세레나 (국문 90)

한국어/아름다운 한국어학교

#### 난타로 배우는 아름다운 한국어와 문화

모두 30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0과는 한국의 인사, 손맛, 사물놀이, 청사초롱 등의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과로 구성된 본문은 생생한 난타 공연장면과 그 상황에 맞는 대화문 및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을 담고 있다.

### 신선영 (영문 96)

#### 박람회 경제학

이 책은 엑스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박람회를 통해 성장한 해외기업 사례를 비롯해 해외 박람회에서 주목 받는 한국기업들의 성공사례, 엑스포에 잘 참여하는 방법과 엑스포를 잘 개최하는 방법, 엑스포를 잘 관람하는 방법 등도 제시됐다. 현재 무역협회 최초의 여성 해외주재원으로 베이징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0년 상하이 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 실무를 담당했던 저자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유명한 국가와 기업들의 전시관과 문화이벤트, 마케팅 방식을 세밀하게 관찰해 기록으로 남겼다.

# 이화인들이여, 이제 합격만이 남아있습니다

5년여 동안의 수험기간은 제 인생에 있어 깊고도 긴 나이테를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기간동안 만일 혼자였다면 저는 지금 합격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체해서 토하고 머리 아프다고 징얼거리고, 생리통 있다고 울상인 저에게  
파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으며, 나도 어쩌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을 때  
가만히 옆에 앉아 눈물을 닦아주는 사려 깊고 다정한 친구 그리고 선, 후배들이 있었기에  
저는 비로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22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 53회 사법시험 제 3차 시험 결과 이화 동창 46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총 707명 합격자 중 재학생을 합쳐 46명이 모교 출신인 것. 대학별 합격자 비율 5위를 차지하며 상위 6개 대학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합격률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한 모교와 합격 동창들을 축하하며  
앞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이화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래 글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안나현 | 법학 11  
2011년 제53회 사법고시 합격

법학관 언덕을 오르며 이화공동체 안에서 이화  
인이자 고시생의 이름표를 달고 생활하던 시간들  
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작년 2011년에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고, 지  
금은 수험생이 아님을 감사하며 다시 법학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풍찬노숙과 같은 수험 생활을 하  
며 지금도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이화인  
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학창시절 장래희망은 법조인이 아니었습

니다. 그렇다고 법조인 대신에 거창한 장래희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험기간 동안에 수십 번이고 저 자신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나는 과연 법조인이 되고 싶은 걸까, 만일 되고 싶다고 해도 그런 자질이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법대에 온 이상 사법시험은 제게 하나의 관문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법학전공자에게 사법시험 합격 여부는 언제나 꼬리표같이 붙어 다닐 것이고, 법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에 그 전문성을 갈고 닦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법조인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법시험 합격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도, 그렇다고 너무 작은 의미를 두지도 않는 것이 저의 수험기간 동안의 마음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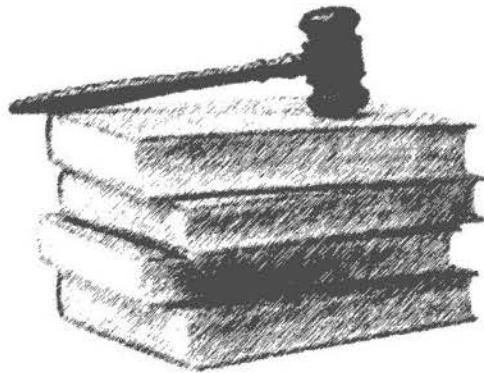
이었습니다.

## 도대체 1차 공부는 어떻게 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사법시험에 뛰어들었으나 막상 1차 공부를 시작하려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마치 사막의 모래 한 줌 집어 든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시험도 결국 따지고 보면 객관식 시험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해당 과목의 객관식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루 종 일정 시간을 공부시간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하므로 1년 동안 학원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고 그 이후의 시간은 혼자 복습하는 것으로





대구에서 1차 시험을 치르고,  
복학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내게 다행스럽게도  
1차 시험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계획을 잡고 신림동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에서의 1년의 시간은 '필 합격' 아니라 '필 불합격'으로 귀결되는 생활이었습니다. 스스로 짜놓은 시간표의 흐트리짐과 스스로 변화하기에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로 하고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집근처 도서관을 전전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1차 책을 거들며 보기도 싫어 8월 말까지는 후사법 예비순환 동영상 강의를 들었고, 기본 삼법 사례집을 혼자 보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점차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9월 달부터는 진도모의고사가 시작되므로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1차 시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니다. 우편으로 모의고사 문제지를 받아서 해당되는 분량의 책을 읽고, 혼자 문제를 풀고 오답을 체크했습니다. 진도모의고사를 12월 말 즈음에 끝내고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전 범위 모의고사 문제지를 사서 하루에 두 과목씩 풀고 오답을 체크하고 최신판례를 보거나 선택과목을 공부했습니다. 대구에서 1차 시험을 치르고, 복학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내게 다행스럽게도 1차 시험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 1차 시험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어떻게?

가까스로 1차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사법시험은 그리 만만한 시험이 아니어서 다시 2차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장 6월에 시험을 치라고 하니 남은 4개월 동안 도대체 7과목을 어떻게 습득해야 하나 걱정이 솟구쳤습니다. 일단

복학을 했기에 4학년 1학기를 다녀야 했고, 수업을 마친 후 예비순환을 들으며 해일처럼 달려드는 시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후사법 예비순환을 겨우 다듣고 기본 삼법은 강의 없이 사례집을 혼자 본 후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시를 끝내자마자 앞으로의 1년을 위해 부모님께 합격을 걸고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방음이 잘 되고, 방 2개짜리 집에서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은 철저히 이기적으로 내 몸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운동할 시간을 내지 못할 거 같아 1년 내내 지겹도록 약을 쟁겨먹었습니다.

2차 시험은 손으로 직접 쓴 답안지로 평가받아야 했기에 1차 시험과는 달리 쓰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조금 아는 것도 많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의의, 요건, 학설, 판례 등을 가능한 한 모두 쓰려고 노력했고 하루에 10장 가까이 되는 종이를 소비하면서 다 쓴 종이로 그날의 공부량을 측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들었고, 예습하고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면 하루가 늘 모자랐습니다. 이렇게 재시기간을 보내고 난 후 10월에 저는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불합격은 약간의 불명예일 뿐

사법시험에는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합니다.

합격과 불합격. 인생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되어 있지만 사법시험에는 매정하게 단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열어두지 않아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생은 새옹지마이며, 오늘의 불합격이 내일의 합격 혹은 다른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처절하게 생각하며 저의 불합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고, 당장 1차 시험은 2월에 있었고, 아직 토익점수도 700점을 넘기지 못한 제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수험생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1차 합격을 위해 필요한 절대 공부시간조차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게 달리 대안이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기에 적은 시간동안 온 신경을 거머쥐고 1차 공부에 몰입하였습니다.

다만 처음 1차를 합격했을 때 유독 민법 점수가 낮았던 것을 감안해 민법 점수를 올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법만큼은 다른 두 과목과는 달리 매일 문제를 풀었고, 다른 두 과목은 격일로 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법 점수는 10점 가량 올리게 되었고, 형법 점수가 좋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1차 공부를 해서 합격했고 다시 4개월을 공부해서 2차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치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4개월을 신나게 놀 수 있다는 생각으로 1년을 4개월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고 생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시와 똑같이 공부해서는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았기에 다른 공부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제 생각에 2차 답안 작성에서 우선순위를 끊자면 논점과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것, 그리고 사안의 검토를 풍부히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판례였습니다. 판례를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판례의 키워드가 정확히 암기되어 있어야 했고, 암기를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7법의 판례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하나의 판례만 있기에 판례를 정확히 적시한 답안과 그렇지 않은 답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외우기 위해 주요 판례들을 고르고, 판례의 문장을 A4용지의 3줄 이내로 축약하고, 두문자를 따서 밤마다 정리한 판례를 녹음하였습니다. 판례의 문구는 발음하기 까다로운 법률용어들이 한데 묶여 있기에 그것을 녹음하기 위해 여러 번 같은 문장을 읽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4번 정도는 반복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 녹음한 것을 MP3에 저장하여 계속 판례의 문구를 속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2차 시험에서 민법은 배점이 150점이기 때문에 민법에서의 고득점은 필수였습니다.

2차 시험 4일 동안에는 교과서를 다 볼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제가 정리한 판례자료만을 보았습니다. 그 판례를 통해 논점과 학설들을 떠올리며 판례의 문구들을 꾸욱꾸욱 뇌에 박아 넣는 심정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읽었습니다.

시험에서는 한 과목당 3~4개의 외운 판례가 나왔고, 그 판례를 까먹을 새라 외운 그대로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시 때와는 달리 쓸 것이 많아서 많은 내용들을 배점에 맞추어 끼워 넣느라고 8

면의 답안지를 빡빡하게 써야 했습니다. 답안지는 지난 4개월의 시간이 합축된 결과물이었고, 재시 때보다는 만족할 만한 답안지를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가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그 결과는 이제 고시생이 아니어도 된다는 합격 통보였습니다.

## 함께여서 더 멀리, 더 오래

합격을 한 후 돌이켜 생각해보니 약 5년여 동안의 수험기간은 제 인생에 있어 깊고도 긴 나이티를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 만일 혼자였다면 저는 지금 합격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체해서 토하고 머리 아프다고 징얼거리고, 생리통 있다고 울상인 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으며, 1차 공부와 토익과 과제가 한꺼번에 밀려와 나도 어찌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을 때 가만히 옆에 앉아 눈물을 닦아주는 사려 깊고 다정한 친구 그리고 선, 후배들이 있었기에 저는 비로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자책하거나 울거나 외로워하거나 밟거나 분노하거나 힘이 없는 이화인들에게 이렇게 작은 위로와 격려를 건넵니다. 우리는 진실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시험과 관계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 위에 자신의 잠재성에 대한 믿음을 곧추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저의 체온을 나누면서 당신의 행보를 응원할 것입니다.



## 제 19대 국회 등원을 축하합니다

졸업연도순



한명숙 (불문 67)  
민주통합당



이미경(영문73)  
민주통합당



신경림(간호76)  
새누리당



김상희(제약76)  
민주통합당



임재근(사회77)  
민주통합당



박혜자(정외78)  
민주통합당



민병주(물리81)  
새누리당



유승희(기독82)  
민주통합당



전정희(정외83)  
민주통합당



최민희(사학85)  
민주통합당



서영교(정외88)  
민주통합당



민현주(사회92)  
새누리당



유은혜(정책대학원 07)  
민주통합당



# 제7회 동창회보 경연대회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훌륭한 동창회보 발간을 희망

지난 2000년부터 동창회 활성화 및 교류를 위해 제작하고 있는 각 대학, 대학원과, 저희 등의 동창회보 발간을 독려하고 좀 더 좋은 회보 발간을 격려하기 위한 회보경연대회가 제7회 째를 맞이하였다.

금년 대회에는 법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경영학과, 국제사무학과, 수학과, 교육대학원, 남가주지회, 자카르타지회 등 총 9개 동창회보가 참가하여 각축을 벌였다. 총동창회는 5월 24일 이화동창 편집위원들의 1차 심사와 5월 26일, 계간문예 편집주간 및 디자인팀의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합산한 점수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였다.

표지 그림을 회원의 수준급 작품으로 채택한 아이디어와 뉴스 전달 뿐 아니라 주요 뉴스 해설까지 곁들인 점, 인물 인터뷰와 여행기 등의 읽을거리, 또한 학술논문까지 취급하여 잡지로서의 기능을 두루 갖춘 의과대학 동창회보에 금상을, 은상에는 편집 배열의 우수성이 돋보인 교육대학원 회보, 동상은 일러스트 기법을 사용한 표지 디자인으로 각축을 벌인 국제사무학과와 수학과 회보, 장려상은 법과대학, 약학대학, 남가주지회, 자카르타지회, 특별상은 전년도 금상을 수상한 경영학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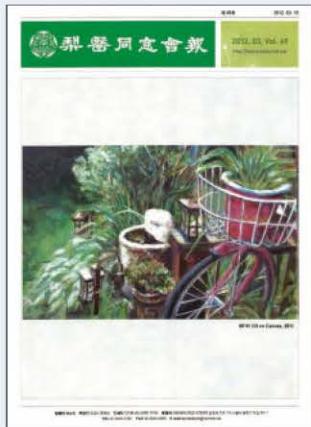
## 심사평

### 단순함이 곧 세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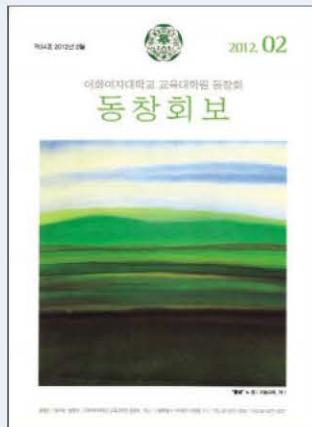
이번 콘테스트에 응모된 사보를 보고 느낀 소감은 늘 해왔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식의 안이한 편집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대상을 차지한 '의대동창'의 경우 그런 안이함의 틀을 과감히 벗어 버리고,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미리 점검하며 꾸민 특집 같은 칼럼이 특히 다채로웠다. 사진 쓰기도 마찬가지다. 어느 부분을 커팅하고 어느 부분을 클로즈업시켜야 의도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것인가 생각하는 시야도 길러야 할 대목이다. 표지디자인 역시 그러하다. 어떤 아이템이 잡지 성격상 적절한 이미지인가 충분한 검증을 거쳐 가능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순함이 곧 세련미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백시종 / 한국소설가협회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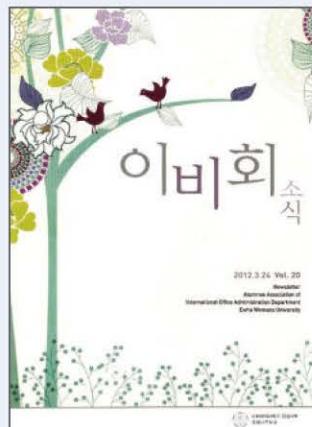
박래후 / 북디자이너, 박시강(사대02)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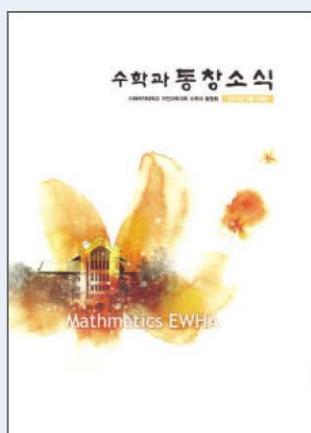
금상-의과대학



은상-교育대학원



동상-국제사무학과



동상-수학과



장려상-법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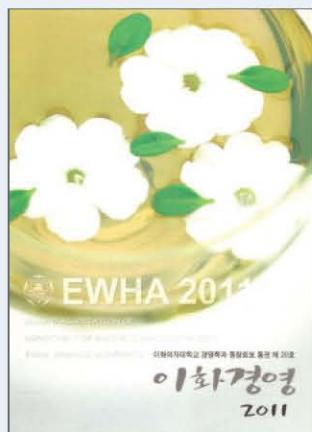
장려상-약학대학



장려상-남가주지회



장려상-자카르타지회



특별상-경영학과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